

두레 생성과 해체 원인*

김 건 태**

1. 서론
2. 자료소개
3. 두레의 위상
4. 수입 측면에서 본 두레의 성격
5. 지출 측면에서 본 두레의 성격
6. 결론

1. 서론

한반도에서 공동농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4세기에는 수십 명이 함께하는 공동농작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미사리 유적이 그 실상을 전한다. 미사리 유적에서 4~5세기(아래층), 6세기(위층) 것으로 추정되는 밭[田] 遺構가 발견되었다.

발굴된 아래층 밭은 남북 110m, 동서 50m로, 약 1,700평 정도로 전체가 하나의 밭이며 중간에 어떤 경계가 있었던 흔적도 없다. 이 밭은 발굴 당시 동서남북 끝이 잘려나간 상태였는데, 이는 밭이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아래층 밭의 이랑과 고랑 폭은 비슷하게 70~80cm로, 합하여 150cm 정도다. 발굴 당시 이랑과 고랑의 고저는 15cm 정도로 그리 뚜렷하지 않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사업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1-RC01).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다. 고랑에는 지름 20cm 정도의 원형 播種構가 30cm 간격을 두고 지그재그로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층 밭 북쪽에서 모두 20기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위층 밭은 남북 160m, 동서 60m로, 약 3,000평 정도로 전체가 하나의 밭이며 아래 층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어떤 경계가 있었던 흔적도 없다. 이 밭은 발굴 당시 북쪽이 잘려 나간 상태였는데, 이는 밭이 원래 이보다 더 넓은 면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위층 밭의 이랑과 고랑 폭은 비슷하게 50cm로 합하여 100cm, 고랑의 깊이는 20~30cm 정도로 추정된다.¹⁾ 아래층 밭에 비해 이랑과 고랑의 폭이 좁아진 데 비해 고저차는 오히려 더 커졌다. 이는 위층에서 행해진 농사가 더 정교했음을 의미한다. 두 밭의 크기와 농법, 그리고 주거지 숫자를 미루어 볼 때 수십 명이 함께 공동으로 농사지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농촌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농사짓는 광경을 보기 어렵다. 특히 논농사에서 그러하다. 혼자서 트랙터, 콤바인 등과 같은 기계를 활용해서 논 갈고, 모내고, 제초제 뿌리고, 타작한다. 두레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같은 농작업 변천 과정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두레농사는 1500년 이상 된 공동농작업 역사의 끝단에 위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농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두레농사가 사라지는 것은 필연이다. 누구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 공동농작업을 멀리한 것이다.

기존의 두레 연구는 농민이 두레를 멀리했다는 점을 과소평가했다. 그 결과 일제시기 연구 대부분은 두레를 미풍양속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²⁾ 그리고 해방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 연구 대부분은 두레 복원이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³⁾ 이와 같은

1)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

2) 豊田重一, 1916 『農社農樂に關する』 『朝鮮彙報』 4月號; 張基昌, 1917 『農社に就て』 『朝鮮彙報』 8月號; 姜鋌澤, 1941 『朝鮮に於ける共同勞動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 『農業經濟研究』 17; 印貞植, 1943 『朝鮮農村雜記』, 東都書籍.

3) 김택규, 1985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조경만, 1987 『농업노동 형태의 생애·경제적 맥락』 『한국문화인류학』 19; 신용하, 1987 『갑오농민전쟁과 두레와 집강소와 폐정개혁』 『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이태진, 1988 『17·8세기 향도조직의 분화와 두레발생』 『진단학보』 67; 윤수중, 1990 『한국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강현, 1997 『한국의 두레』.

기존의 연구는 농민계몽 차원에서 두레를 평가했다거나, 낭만적으로 두레를 이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농민의 입장에서 두레를 바라본다면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가 제3자적 관점에서 두레를 대한 만큼 실증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먼저 두레 발생 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일제시기 연구는 대체로 19세기로 보는 데 비해 1980년대 이후 연구는 이양법이 일반화되는 17세기 후반으로 설정한다. 이양법 보급과 두레 발생을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두레농사는 김매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양법은 직파법에 비해 제초 노동력을 7할 정도 절감시켜 준다.⁴⁾ 즉 김매기 노동력을 절감시켜 주는 이양법 보급으로 제초 노동과 관련된 공동노동이 활성화 된다는 견해는 논리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어색한 주장이다. 한편 19세기에 두레가 발생한다는 견해 또한 부족한 점이 있다. 즉 두레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다음으로 해체 원인에 관한 문제이다. 일제시기 연구는 공동재산 몰수, 계급분화, 노동과 향연의 균형이 깨진 점 등을 들고 있다. 그에 비해 1980년대 이후 연구는 일제의 농촌장악 정책, 상품화폐경제의 침투, 농촌 임금노동의 발생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가 지적한 두레 해체 원인은 대체로 조선후기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즉 분화, 균형, 붕괴, 침투 등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두레 해체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다. 이같이 두레 해체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런 점에서 시장경제체제, 곧 자유경쟁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점을 두레 해체의 한 원인으로 지적한 안승택의 연구⁵⁾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즉 두레꾼의 저항이 두레 해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레꾼의 저항이 관철될 수 있었던 시대 분위기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는 두레가 농사와 관련된 '모임[社]'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집문당: 배영동, 2004 『조선후기 두레로 본 농업생산의 주체』 『실천민속학연구』 6.

4) 김건태, 2004 『조선후기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5) 안승택, 2009 『해방 전후 한국농촌의 공동노동과 호락질』 『비교문화연구』 15.

분석은 두레농사[공동농작업]에 국한했다. 이같이 기존 연구는 ‘모임’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 재정 등과 관련된 문제를 소홀히 다루거나 아예 외면했다. 그리고 기존 연구는 두레와 당시 현실을 분리하여 분석했다. 즉 조선후기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간과한 것이다. 기존 연구는 두레가 호혜성과 평등성에 기반한 마을 사람들의 모임이었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노비제가 존속하고 반상적 신분질서가 강하게 작동하던 시기에 그러한 모임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19세기 장흥지역 여러 동계를 비롯한 마을 단위의 각종 계들이 반상적 신분질서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기존 연구가 위와 같은 논쟁의 여지를 내포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두레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제시기에는 대체로 현장조사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연구는 촌로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는 두레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 들고, 증언은 두레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두레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두레꾼이 남긴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강진군 하고동, 장흥군 모산동과 자미동 두레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자료소개

세 마을은 두레에서 생산한 아래와 같은 자료뿐만 아니라 두레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도 남기고 있다.

- 강진군 병영면 下古洞 『農軍進貫捧上冊』 : 1844~1970년
- 장흥군 용산면 茅山洞 『喪賻契傳掌記』 : 1886~1938년
- 장흥군 부산면 子美洞 『農稷案』 : 1914~1992년
- 장흥군 부산면 子美洞 『更新勤農組合契案』 : 1934~1998년

6) 李庸起, 2007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건태, 2019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동아문화』 57.

위 세 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마을 경계가 크게 바뀌었다. 대한제국 기에는 대체로 자연촌락[마을]과 행정 洞[里]이 일치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러 자연촌락이 하나의 리로 편제되었다. 행정구역 개편 때 하고리·件內里를 합쳐 하고리로, 모산리·蒲谷里를 합쳐 모산리로, 자미리·龍頭里·九丁里를 합쳐 九龍里를 만들었다. 이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리 경계가 크게 바뀌었으나 위 자료는 1914년 이후에도 여전히 舊洞, 곧 자연촌락[마을] 단위로 작성되었다. 세 마을에서 남긴 자료는 마을 명칭으로 洞과 里를 혼용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洞으로 통일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洞은 자연촌락, 곧 마을을 의미한다.

『農軍進貫捧上冊』(이하 진세책으로 약함)은 하고동 金鼓[농악]契 傳掌記다.⁷⁾ 하고동 금고계는 1844년 5월에 16인이 내놓은 술 9항아리[東海], 代錢[술 대신 받은 돈] 8.8냥, 乾魚 5마리를 자산으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1970년 4월 14일 契錢 100원을 리장에게 넘기고 약 130여 년의 생을 마감하였다.⁸⁾ 『喪贖契傳掌記』는 모산동 상부계 전장기다. 모산동 주민은 상부계를 金鼓契라고도 여겼다.⁹⁾ 따라서 1886년 창설된 상부계는 금고계가 重修된 것이나 다름없다. 모산동 금고계 창설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70년대에 이미 활동이 미미했고, 1881년 동계에 통합됨으로써 소멸했다.¹⁰⁾ 상부계는 1886년 洞中收補錢, 즉 동중에서 출연한 8.76냥을 자산으로 설립되었고, 1938년 11월 20일 동계에 흡수됨으로써 약 50년간의 생을 끝냈다.¹¹⁾

『農稷案』은 자미동 農契 전장기다. 농계는 創契員 24명이 내놓은 24.2냥과 耘草錢 0.8냥을 기금으로 삼아 1914년 7월 7일 설립되었고, 1992년 하반기에 남은

7) 『農軍進貫捧上冊』 壬寅年(1902) 9月 20日, 14兩7錢 7月 日 奉數 21斗價 入 …… 14兩7錢 6月 日 奉數價 書契贖給; 『書稷案』 壬寅年(1902) 9月 20日, 14兩7錢 金鼓稷 奉數21斗價 入. 원자료에는 숫자가 한자로 적혀있으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다. 이하 동.

8) 『農軍進貫捧上冊』 庚戌年(1970) 4月 14日, 差引殘金 壹百圓(里長許拂).

9) 『喪贖契傳掌記』 己酉年(1909) 11月 20日, (禾穀) 1石價 8兩 洞用; 『洞中年下記』 己酉年(1909) 11月 20日 金鼓契 禾谷錢 8兩(入). 이렇듯 『洞中年下記』 작성자는 상부계를 금고계라 인식하고 있다.

10) 모산동 각종 계와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김건태, 앞의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김건태, 2021 『19세기 공동납과 마을자치』 『한국문화』 95.

11) 『喪贖契傳掌記』 戊寅年(1938) 11月 20日, 自今 以後는 合於洞契.

계전을 도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로 지출하고¹²⁾ 80여 년 만에 소멸되었다. 1943년부터 농계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942년까지만 분석하기로 한다. 『更新勤農組合契案』¹³⁾은 자미동 갱신근농조합계(이하 근농계로 약함) 전장기다. 근농계 설립연도는 불명이나 1927년 이전에 설립된 것은 확실하며¹⁴⁾ ‘組合’ 두 글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1920년대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1920년대는 ‘조합’ 두 글자가 들어간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그중 많은 단체는 자미동 사례에서 보듯이 계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 ‘갱신’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설립 후 언제부턴가 근농계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 1934년에 重修하였던 것이다. 중수 당시 계원은 14명이었고, 1998년까지 생산된 자료가 현존한다. 하지만 1948년 계원에게 契錢의 79.6%를 분배함으로써 자산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¹⁵⁾ 그 이후 활동 또한 위축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1947년까지만 분석하기도 한다. 세 마을에는 위 자료에 더하여 두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고문서가 현존한다.¹⁶⁾

세 마을의 위상은 서로 달랐다. 19세기 후반 하고동은 전형적인 민촌이었다. 19세기 후반 하고동에는 다양한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는 성씨는 김씨였다. 김씨 성은 1898년 호적에서 30%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줄곧 줄어들어 1960년대 호적에서는 21.6%를 점했다.¹⁷⁾(〈표 1〉 참조) 하고동에 거주하던 김씨는 다양한 본관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고동이 동성촌락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김씨 성의 비중이 높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고동에는 강진을 대표하는 유명 성씨가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2) 『農契案』 壬申年(1992) 6月 15日, 差引殘金 金額은 道路 확장 土地代로 支出하였음.

13) 두 종류 전장기가 전하는데, 다른 하나의 제명은 『更新勤農組合收入支出簿』(1937~1940)다.

14) 『更新勤農組合契案』 昭和 13年(1937), 4圓60錢 昭和二年度 小作料納付金餘金. 昭和 2年은 1927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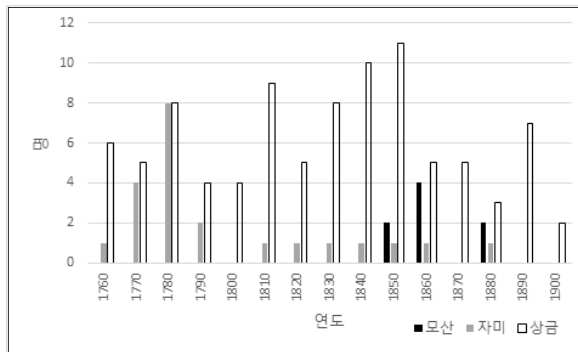
15) 『更新勤農組合契案』 己丑年(1948), 四阡八百九拾九圓九拾九錢果 禾谷八斗五升 …… 三阡九百圓 拾參名下分排下.

16) 세 마을을 비롯한 장흥·강진지역 자료는 교원대학교 이용기 교수가 수집한 것이다. 애써 수집한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준 이 교수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일부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에 소개된 것이다. <http://archive.history.go.kr/>

17) 1898년(『古郡內下古里戶籍中抄』 戊戌 2月), 1932년(『下古里致喪契』 昭和 7年 2月), 1947년(『洞會決議事項』 4280년 10월 15일), 1960년대(『호적부』).

〈표 1〉 하고동 주민 구성

1898년(戶籍)	1932년(致喪禮)	1947년(洞會)	1960년대(호적)
김 18(30%), 엄 9(15%), 강 6, 이 5, 정 4, 박 4, 최 3, 신 2, 임 1, 남 1, 마 1, 서 1, 심 1, 한 1, 과 부 3. 합계 60호	김 20(28.6%), 강 16(22.9%), 엄 7, 최 6, 정 3, 신 2, 박 2, 양 2, 이 2, 장 2, 전 2, 조 2, 임 2, 배 1, 천 1. 합계 70인	김 18(22.0%), 강 5(18.3%), 박 7, 최 7, 엄 6, 전 5, 이 4, 장 4, 조 3, 정 2, 배 2, 양 2, 신 1, 임 1, 고 1, 방 1, 위 1, 윤 1, 천 1. 합계 82인	강 16(21.6%), 김 14(18.9%), 전 7, 최 5, 박 4, 양 4, 엄 4, 이 3, 조 3, 정 2, 신 2, 임 2, 장 2, 고 1, 민 1, 방 1, 배 1, 윤 1, 천 1. 합계 74호



〈그림 1〉 1764~1909년 장흥향교 임원 배출 현황

* 비교: 임원 수를 10년 단위로 묶었음.

19세기 후반 모산동은 영광 김씨 동성촌락이었으나 그 위상은 장흥부 소속 여타 마을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았다. 조선후기 장흥향교 임원¹⁸⁾(齋長, 掌議, 色掌, 執綱, 直員) 구성 현황에서 모산동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1764~1909년 사이에 109개 동에서 향교 임원을 배출했는데, 연인원 기준으로 모산동은 55번째였다.¹⁹⁾ 향교 임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상금동에 비하면 그 숫자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배출 시기 또한 향교 임원을 배출한 동이 크게 증가하는 19세기 후반에 집중되었다.(〈그림 1〉 참조) 모산동은 20세기 이후 들어 洞格이 높아짐으로써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반촌으로 인식되었다.²⁰⁾

18) 長興鄉校 『校任案』(장흥향교, 1994 『장흥향교지』)에 등재된 인물.

19) 김건태, 앞의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참조.

〈표 2〉 하고동 농지 현황

(단위: 평)

소유자		연도		1915년		1940년		1965년	
답	本洞人	26,178	(7.0)	28,500	(7.6)	188,586	(52.1)		
	他洞人	347,180	(93.0)	344,446	(92.4)	173,517	(47.9)		
	小計	373,358	(100)	372,946	(100)	362,103	(100)		
전체	本洞人	64,457	(14.8)	62,560	(14.5)	245,439	(57.7)		
	他洞人	371,839	(85.2)	368,267	(85.5)	179,894	(42.3)		
	合計	436,296	(100)	430,827	(100)	425,333	(100)		

* 비교: () 안 숫자는 %임.

〈표 3〉 모산동 농지 현황

(단위: 평)

소유자		연도		1915년		1940년		1965년	
답	本洞人	131,160	(60.8)	82,924	(37.6)	139,720	(70.5)		
	他洞人	84,532	(39.2)	137,332	(62.4)	58,417	(29.5)		
	小計	215,692	(100)	220,256	(100)	198,137	(100)		
전체	本洞人	210,978	(67.8)	130,204	(41.8)	206,650	(73.0)		
	他洞人	100,074	(32.2)	181,428	(58.2)	76,392	(27.0)		
	合計	311,052	(100)	311,632	(100)	283,042	(100)		

* 비교: () 안 숫자는 %임.

19세기 후반 자미동은 영광 김씨 동성촌락으로 반촌에 속했다. 조선후기 장흥 향교 임원(齋長, 掌議, 色掌, 執綱, 直員) 구성 현황에서 자미동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1764~1909년 사이에 자미동이 배출한 임원 수는 109동 중 22번째였다. 그런데, 19세기 자미동의 위상은 그 이전에 비해 조금 하락한 듯하다. 장흥의 유력 반촌인 상금동은 19세기에도 임원을 많이 배출한 데 비해 자미동은 10년에 1명 정도 배출하는 데 그쳤다.(<그림 1> 참조)

세 마을은 洞格이 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하고동과 모산동은 洞內 소재 田

20) 李庸起, 앞의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畝 소유주의 성격 또한 판이하다. 1940년대까지 하고동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는 1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²¹⁾(〈표 2〉 참조) 특히 재촌지주가 소유한 답은 10%도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농지개혁의 영향으로 1960년대가 되면 재촌 지주지가 50%를 넘어서게 된다. 19세기 하고동은 반격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생활도 매우 궁핍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산동은 1910년대에는 재촌 지주지가 50%를 상회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중이 낮아져 1940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졌다.(〈표 3〉 참조)²²⁾ 일제시기 들어 동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3. 두레의 위상

1) 두레의 뜻

오늘날 두레는 대체로 농사와 관련된 용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두레의 의미는 20세기 들어 축소되었다. 아래 “의정대신 윤용선씨 상소 소본을 엮어 기지호노라”라는 제목이 달린 1899년 제국신문 기사를 보도록 하자.

붕당을 파홀거시오니 …… 비록 티평한 세상에도 기미를 삶히고 번침을 막을 터이옵거늘 함을며 지금이 엇더흔 때온니잇가 제제흔 관원이 화합하야 몸을 니져바리고 나라을 금심하여도 오히려 건지지 못홀터이온디 이에 문을 난으고 두레를 쓰고 기를 세워가며 공스를 빌어 스스 리를 경영하며 함정을 설치하며 금을을 베풀어 추향하느거시 조금달으게드면 문득 썩고 무함하며.²³⁾

두레는 정치와 관련된 용어로도 쓰였고, 그 뜻은 ‘黨’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용선의 상소는 원래 한문으로 작성된 것인데, 신문은 원문의

21) 『하고동 토지대장』, 강진군청 소장.

22) 『모산동 토지대장』, 장흥군청 소장. 사정 당시 모산동은 679번지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4개 필지는 토지대장을 확보하지 못해 분석에서 누락되었다.

23) 『제국신문』 1899년 11월 6일.

‘團’을 두레로 번역하였다.²⁴⁾ 아래 1900년 제국신문 기사에서 보듯이 두레는 어업과 관련된 용어로도 쓰였다.

일인이 금년에 한국에나와 고기잡는스업이 만산포 진해 고성 거제등디 주위와 통영 근처와 시랑도 옥거도 근처에서 잡는것이 작년보다 비상하게 풍성 혼지라 그는 다고기 잡는 두레를 조직하여 권장한후로부터 어업허려 나오는자가 더욱더하여 금을 슈효가 일익삼십여 두레오 비슈효가 오빅 구십오척이오 어부가 스천이빅여명에 지나는데.²⁵⁾

일본어선 595척이 130여 船團[두레]을 꾸렸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에서 ‘두레’라고 표기한 데서 보듯이 대한제국기까지만 하더라도 ‘두레’가 근대적 언어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30년대 신문에서는 두레를 ‘드레’,²⁶⁾ ‘드-레’²⁷⁾로 표기하기도 했다.

이렇듯 두레는 우리말 ‘모임’, 한자 ‘團[조직]’의 뜻을 가진 말이다. 1930년대 지식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1930년 조선일보에 실린 아래 안재홍의 글을 보도록 하자.

桓因天帝를 중심으로 그 天民的인 結合을 일우엇슬 것처럼 外他の 사람들은 각각 等小의 神格을 중심으로 『두레』를 일우엇스되 일정한 奏樂과 舞蹈의 儀典을 要하였스니 社를 훈하여 『두레』라 함과 組合을 『두레』라 함과 農樂이라는 鉦鼓管螺의 合奏하는 舞樂의 團體를 『두레패』라 하고 그 行爲를 『두레노리』라 함은 日本의 ツレ(連)가 이의 轉訛임과 한가지 또 그 古意를 잘 標示함이다.²⁸⁾

한자 社의 뜻이 두레인데, 당시 사람들은 組合도 두레라고 했다. 그리고 농악 연주단을 두레패, 농악을 울리면서 노는 것을 두레노리라 불렀다. 이런 의미에서

24) 『고종실록』 39卷, 高宗 36年 11月 5日, “議政尹容善 以名在獄案 上疏乞遞 而仍條陳時弊 …… 一曰破朋黨 自古 朋黨之說 宋之歐陽脩 言之詳矣 我朝先正臣李珥 辨之明矣 皆以君子 小人有朋 無朋 反覆曉說 臣無容更陳 而況今之時 爲何如時哉 濟濟群僚 寅協和衷 忘身憂國 尙恐不濟 乃於是 分門成團 立幟隱疊 假公營私 設阱張罟 趣向少異 輒售擠陷.”

25) 『제국신문』 1900년 10월 26일, 잡보.

26)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14일.

27) 『매일신문』 1933년 8월 12일.

28) 『조선일보』 『朝鮮上古史管見』, 1930년 2월 12일.

여기서는 두레패가 하는 농사일을 두레농사로 칭하기로 한다.

대한제국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분야에 걸쳐 사용되던 ‘두레’ 두 글자는 오늘날 생활에서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00년대 들어 사람들의 뇌리에서 빠르게 잊혀 가던 ‘두레’ 두 글자는 농촌계몽운동, 이른바 브나로드운동의 영향으로 1930년 전후에 일상생활 속으로 소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²⁹⁾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³⁰⁾에서 그러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시스템에서 두레, 농계, 농사, 농기, 이앙, 제초, 洗鋤宴 등과 같은 단어를 검색해보면 대체로 신문이 연결되는데, 거기서 간혹 ‘두레’ 두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뉴스라이브러리에서 두레를 검색해보면 많은 기사(칼럼, 소설 등도 포함)를 찾을 수 있다.

필자가 확인한 1945년 이전 기사는, 1910년대 2건, 1920년대 19건, 1930년대 70건, 총 91건이다.³¹⁾ 이 중 62건, 전체의 68.1%가 1929~1935년도 기사이다. 농촌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두레 관련 기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신문이 보여주는 추세는 일제시기 각종 조사서류 ‘農契’ 항목에서도 확인된다. 1913~1914년에 작성된 관습조사서는 농계에 대해 “農契는 一部落의 農民으로써 組織하여 同業者 共同으로 耕作하고 또 鰥寡孤獨은 無料로 耕作收穫을 도와준다.”³²⁾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1920년에 발간된 『조선부락조사예찰보고』³³⁾에서 ‘農社’ 또는 ‘農旗’로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1923년에 간행된 『조선민정자료』³⁴⁾는 그 비슷한 내용을 ‘農契’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1921년에 시작하여 1930년대까지 이어진 風俗調査³⁵⁾ 항목에 ‘두레(農契)’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항목명이 한자로 되어있고, 극히 일부 항목명만 ‘두레’처

29) <http://www.koreanhistory.or.kr/>

30)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31) 두레를 用器의 뜻으로 사용한 기록은 제외한 것이다.

32) 조선총독부 중추원, 『慣習調査書』 『契』 農契. (국사편찬위원회 B13G-23). 동 자료는 여러 조사서를 합철한 것인데, 중간에 1913~1914년에 조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33) 조선총독부, 1923 『朝鮮部落調査豫察報告』.

34) 조선총독부, 1923 『朝鮮民政資料』.

35) 왕현중·김경남·이승일·한동민 편, 2019 『일제의 조선 구관 제도 조사와 기초자료』, 혜안.

럼 한글이다. 현재 4종의 조사서가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처음에는 연필로 작성했다가 그 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최종원고를 작성했다.³⁶⁾

신문과 조사서류가 잊혀 가던 ‘두레’ 두 글자를 소환하면서 농사 관련 조직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두레의 의미는 1947년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사전에서 “농사꾼들이 모를 내고 김 매기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체계(體系) 있게 하기 위하여 이룬 모임”³⁷⁾으로 정의됨으로써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듯하다. 이 글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두레라고 쓰면 그것은 농사 관련 모임을 뜻한다. 우리는 두레의 뜻이 ‘모임[團·社]’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두레는 공동노동, 농약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두레농사, 두레농약은 공동노동과 농약의 특수 형태라 할 수 있다. 아무튼 두레의 성격을 제대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농사 관련 모임 그 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위에서 열거한 자료, 즉 전장기는 가치가 매우 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두레’ 두 글자를 포함한 기사 91건 중 해당 지역이 확인되는 것은 충남 25건, 전북 11건, 경남 2건, 경기 2건, 경북 1건, 강원 1건 등 모두 42건이다.³⁸⁾ 지역적 친연성이 확인되는데, 1930년대까지 호서와 호남북부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두레[農社]가 19세기 초 전라도에서 등장하였지만 1910년대에는 충청도에서 가장 성행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³⁹⁾ 사실 앞에서 나열한 검색어를 포함하는 신문기사의 발신지를 보면 경기와 하삼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두레’ 두 글자는 특정 지역 기사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두레는 경기와 하삼도 곳곳에서 행해졌지만 ‘두레’ 두 글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1930년대만 하더라도 ‘두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신문은 ‘두레질(지슴메는 것),⁴⁰⁾ ‘두레꾼(社),⁴¹⁾ ‘두레(숙칭 農社)’⁴²⁾ 등과 같이 두레의 의미에 대해

36)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 등록번호 KO15163.

37) 한글학회, 1947 『큰 사전』, 을유문화사.

38) 충남 - 대전(8건), 논산(6건), 공주(4건), 홍성(3), 부여(1건), 청양(1건), 서천(1건), 당진(1건), 전북 - 익산(5건), 부안(3건), 전주(1건), 김제(1건), 불명(1건), 경남 - 단성(1건), 하동(1건), 경기 - 부천(1건), 안성(1건), 경북 - 안동 1건, 강원 - 횡성 1건이다.

39) 張基昌, 앞의 『農社に就て』.

괄호를 치고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두레 두 글자의 소환이 농촌계몽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두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1927년 조선일보에 실린 아래 『原始共産時代의 遺風研究』는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다소 장황한 감이 있지만 전문을 소개한다.

그러나 原始共産時代의 共同耕作의 遺風을 가장 잘 標示하는 것은 품아시보다도 돌이 두레라 할 것이다. 두레라 함은 漢字어 『社』를 意味한 것이니 이것은 數人或은 一二十人식이 패를 지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오히려 滿足치 아니하고 一村의 全員이 總히 出動하여 적어도 五六十名 乃至 百餘名の 農軍이 一齊히 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이른 것이다.

두레는 모를 내이거나 쪼는 벼를 거두어들이는 때에 보다도 大概是 김을 매는 때에 行하게 되는 것이니 農村의 公會堂인 茅亭(慶尙道에서는 흔히 이것을 農廳이라 한다)에서 一村의 農軍이 다 모히어 爛漫한 公議을 徑하여 한번 두레날 날짜를 決定하게 되면 그 날에는 품아시나 홀악질 무엇을 勿論하고 一齊히 그것을 停止한다 이날을 當하면 茅亭에는 일즉부터 쟁장목으로 그 머리를 쏘인 黃龍을 거린 큰 旗를 내어 세우고 장라팔을 붙고 징을 쳐서 全村中에 信號를 發한다 農軍들도 이날은 밥을 일즉히 먹고 조희색기로 周圍를 둘러감은 패랑이(平涼笠)을 쓴 輕快한 裝束으로 곰방대를 태어 물기도 밧부게 一齊히 茅亭으로 모인다.

이리하여 全村中의 農軍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호게 되면 다시 늙은 農軍의 主宰下에 簡單한 形式의 緊急會議가 열리어서 當日의 部署를 定하게 된다 장고 잘 치는 것말랑반 쟁과리 잘 치는 췌짚이 징 잘 치는 朴書房은 풍장(農村樂器)軍으로 쏘히고 힘 세이고 등짐 잘 하는 趙마치와 작은돌이는 午飯과 酒肉을 저날은 사람으로 指定된다. 이리케 決定이 된 뒤에는 黃龍旗를 先頭로 풍장을 울리면서 百餘名の 農軍은 秩序 疉는 行列을 지어서 혹은 곰방대를 입에 물은 채로 혹은 것불화로를 어깨에 메인 채로 들을 向하여 出發한다 일터에 이르러서는 四五分 동안 잠간의 休憩가 잇슨 뒤에 옷을 벗고 등거리적삼에 쇠코무잠방이를 입고 호미를 들은 채로 맑은 바람에 푸른 물결을 치는 靑苗가 옥어진 눈에 들어서서 一列을 지어서 주-기 늘어 엮데인다 이 늘어 엮데인 行列의 압해는 다시 풍장군의 素朴한 古代音樂이 알외어 진다 무릅을 쌀코 한 덩이 두 덩이의 흙을 파넘기는 사이에 어느듯 기다란 청으로 짚는 상사소리가 새로히 일어난다 『반달가튼

40) 『동아일보』 1926년 7월 31일.

41)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14일.

42) 『매일신문』 1934년 8월 5일.

서마직이 …… 어-여루 상사디야』하고 한 사람이 곡조를 먹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一齊히 이에 和應해야 맑은 소리가 금이라도 녹일듯한 六七月의 炎熱에 타오르는 들판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이러할 때에는 아모리 밥분 行人이라도 한번 발을 멈추고 서지 안홀 수 업는 것이다 이리하여 興이 도도아 오르고 힘이 더 날수록 풍장은 더욱 공상을 마주어서 요란히 울고 상사소리는 더욱 곡조가 자저서 빨라질 때 흙물투성이를 한 호미자루도 또한 짚아서 더욱 밧버저서 『반달가튼 서마직이』를 瞬間에 매어 마치고 다시 황새밤이 열두마직이로 옮기고 이것을 또 한번 개가티 쫓낸 뒤에는 쪽두밤이 열일곱 마직이로 옮기어서 한참 동안에 三四十斗落이 넘는 만흔 눈을 얼는 매어 내이는 것이다 이리하여 한참을 마치고 나오게 되면 조금 넓다란 논두렁에는 明太 무침과 콩나물 김치의 안주를 兼한 두서너 동이의 막걸리가 마춤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기사발로 듬북듬북 쓰는 부-연 막걸리는 늙은 農軍으로부터 次第로 돌기 始作하여 가장 年少한 총각 農軍에게까지 고로 고로 밧쳐 온다 더위에 타고 상사소리에 잠겼든 말은 목은 어느듯 다시 막걸리의 巡盃에 依하여 얼근하게 축여진다 술이 쫓난 뒤에는 다시 상투미테 찢러든 곱방대가 썰려나온다 歡談이 交換되고 諧謔이 일어난다 풀을 자리하여 안기도 하고 흙덩이를 베풀어야 눅기도 한다 李道승이 御史로 暗行하다가 農軍에게 逢變을 하든 것도 이때 엇든 것이다 이러한 休息은 二三十分 동안 繼續된다.

充分한 休息을 어든 뒤에는 늙은 農軍이 먼저 담뱃대를 탁탁 떨어져 다시 상투미테 쫓고 일어선다 노든 農軍들도 또한 이를 딸아서 일어난다 다시 눈에 들어서서 먼저와 가튼 愉快한 勞働이 始作된다 이러케 일하기를 午前과 午後에 셋 차례씩 하로에 습하여 여섯 차례를 거듭한다 여섯 차례를 쫓내이고 나서도 여름의 긴해는 아죽도 白木 두 疋 길이의 餘裕를 가지고 西山에 남아 있다 이 때에는 다시 아침에 나올 때보다도 몇 倍나 더한 宏大한 凱旋의 行列이 시작된다.

몸은 이미 여러 차례의 막걸리에 醉하얏다 西便으로부터 오는 바람은 낮 때의 炎熱을 얼마 즈 掃淸하여준다 그들의 興趣는 정히 높혔다 풍장이 다시 울기 始作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침에 나갈 때와 가튼 緊張味을 失한 通常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조 깃거움이 넘치고도 興이 무르녹은 勝利를 알외이는 曲調이다 黃龍旗는 다시 壯丁의 억개 우에 높히 소사서 바람에 나뭇기면서 춤을 춘다 行列은 徐徐히 움직여진다 이 때에는 두레에 나갓든 農軍들뿐 아니라 近處에 흐터저 있다가 夕陽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參加하게 된다.

牧童과 草豎들까지도 參加한다 群衆은 漸次로 增加하여 幾百의 大集團을 일우게 된다 先頭에서는 풍장이 아조 酣濃하게 울리운다 行列中에서는 『어아어아』하는 歡呼의 노래가 나온다 억개춤이 나온다 엉덩이 춤도 나온다 가로 뛰고 모로 뛰는 작난이 나온다 패랑이 꼭지에 꼬졌든 풀꽃은 짱에 떨어진다 패랑이는 다시 훨덕 벗기여저서 半空中에 내들리인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서로 부여잡고 어울어저서 춤을 춘다 이러한 동안에 行列은 그대로 進行되어 村中の 가장 큰 길거리에 다다

렀다 男女와 老幼를 가릴 것 업시 모도 門 밖게 나와서 終日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勝利를 얻고 돌아오는 이 凱旋軍을 마치하야 구경하며 또 歡呼한다 이리하야 한참 재미있게 노는 동안에 해는 어느덧 짙어어서 薄暗의 으스스한 장막을 내린다.

이러케 재미있는 노리는 이 때에야 비로소 罷하게 된다.

우리는 이에서 무엇보다도 一層大規模의 共同勞働의 情神을 볼 수 잇슴은 勿論이 어니와 우리는 이에서 그밖게 또다른 무슨 더 튼 意義를 發見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니 그것은 곧 勞働에 對한 音樂(朝鮮農村의 풍장에 現代의 音樂이라는 말을 使用함은 좀 우수한 듯 하나)의 利用 다시 말하면 勞働의 藝術化 - 歡喜의 勞働을 이에서 實見할 수 잇다는 것이다 勞働의 藝術化는 이제 新社會를 꿈꾸는 모든 사람에 依하야 다 昌道되고 또 憧憬되는 바이다 勿論 이에 꿈꾸는 勞働의 藝術化라는 말의 意義는 醜汚하고 危險하고 괴로운 作業은 무엇을 勿論하고 發達된 모든 精妙한 機械에 依하야 行함과 同時에, 勞働 그것을 恰似히, 엇더한 畫家가 金剛山의 가을 風景을 그리거나, 또는 엇더한 彫刻家가 키스하는 男女의 石膏像을 彫成함과 同一한 趣味로써 行하러 함에 잇다고 볼 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主張하는 이로서 朝鮮의 農民은 벌써 數千年前부터 實際로 行하야 오는 勞働의 藝術化 - 비록 그것이 極히 原始的의 것이라 할지라도 - 가 잇슴에 意를 留하는 이는 아마 別로 엷는 듯하다 世界 어느 나라의 勞働者보다도 가장 괴로움고 된 勞働을 하는 朝鮮의 農民들은 勿論 그 勞働을 決코 우리가 理想하는 바와 가티 藝術로 看做하게까지 되지는 못하얏지마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唯一한 音樂이오 慰安物인 풍장과 노래를 勞働에 利用하야 그로서 그 慘澹한 勞働의 苦痛을 忘却할 뿐 아니라 돌이켜 그들의 勞働力을 鼓舞하고 또 그 能率을 增進할 줄 알아왔다.

이제 普通 한 사람의 農軍의 勞働能率과 두레制度에 依한 能率과를 比較한다면 後者에서 前者보다 四割乃至 五割 째로는 十割에 갓가운 增加率(비록 그 勞働이 조금 거처른 弊는 업지아니하나)을 發見할 수 잇나니 이에 두레方法이 農業經濟上에 얼마나 큰 動力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잇스며 또 우리는 勞働能率은 一人이나 或은 數人의 分散勞働(分業이 아님)보다도 多數한 사람이 共同으로 하는 集合勞働이 얼마나 偉大한 效果를 齎來하는가는 짐작할 수 잇다 이것이 곧 相互扶助가 우리 生活을 얼마나 幸福케 하는가를 證示하는 것이며 딸아 이 두레와 가튼 大規模의 共同勞働制度는 決코 내것과 네것을 甚하게 區別하야 거울과가티 平濶한 廣野에 縱으로 橫으로 幾千幾百의 阡陌을 그어서 土地를 조각조각 零瑣化한 私有財產制度下에서는 到底히 發見할 수 업는 바이고 적어도 幾千年以前 部落共產時代에서부터 共同으로 勞働하고 共同으로 耕作하야 오든 大農法의 하나이라 判斷치 아니할 수 업는 것이다.⁴³⁾

43) 『조선일보』 『原始共產時代의 遺風研究』, 1927년 8월 17일, 18일, 19일.

노동에 음악을 이용하는 ‘勞働의 藝術化’, 모든 사람이 꿈꾸는 ‘新社會’, ‘共同으로 하는 集合勞働이 얼마나 偉大한 效果’, ‘土地를 조각조각 零瑣化한 私有財産制度下에서는 到底히 發見할 수 업는 바이오’ 등과 같은 표현은 두레를 낭만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글이 그리고 있는 농촌은, 이른바 대동사회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20세기 초 조선 농촌은 대동사회와는 너무나 다른 사회였다. 한편 위의 글은 당시의 실상도 전하고 있다. 두레농사는 모를 내거나 벼를 벨 때보다 김을 맬 때 이루어진다는 점, 두레농사의 결과가 거칠다는 사실, 조선 농민은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보다 더 힘든 노동을 한다는 점, 농민들은 노동을 예술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다.

그런데 두레를 보는 농촌계몽운동가들의 시각은 이중적이었다. 그러한 예로 심훈을 들 수 있다. 그는 두레에 대해 소설 『常綠樹』에서는 긍정적으로, 아래 『筆耕舍雜記』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이월초 하로는 머슴의 설날이라 한다. 남의 논마지기를 얻어하거나, 밥술 먹는 집의 머슴노릇을 해서, 農奴의 生活을 하는 그네들이 一年에 한번 실컷 먹고 마시고 마음껏 뛰노는 날이, 이 二月初 하로다. 아침부터 밤이 이슬도록 아래웃 마을에서 징, 팽가리, 새납, 장고 같은 풍물을 불며 뚜드림 소리가 끈일 사이 없이 들린다. 그네들이 두레를 노는 光景은 『常綠樹』中에서도 描寫한 바 있어 略하지만 …… 平素부터 營養不足에 걸린 그네들은 그나마 걸터듬을 해서 그 술을 마시고, 걸신이 들린것처럼 그 거친 飲食을 어귀어귀 틀어넣는다. 그러고는 온 終日 뚜드리고 뛰놀면서 온 洞內를 돌아다니고 나니 『알콜』 기운은 그네들의 腸子와 單純한 神經을 刺戟시켜서, 惡性으로 醉하게 한다. 곤죽이 되도록 醉하고 나니, 대수롭지 안흔 일에 衝突이 되고, 平素의 不平이 爆發되면 流血의 慘劇까지도, 演出하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그네들의 血色 없는 입은 『우리에게 肉體와 情神의 營養을 달라!』라고 부르짖을 줄을 모른다. 自己 네의 貧困과 無智를 아직도 八字땀으로만 돌릴뿐. 오오 形骸만 남은 百萬, 千萬의 宿命論者여! 그대들은 언제까지나 그 宿命을 짊어지고 살려는가? 中樞神經이 물려 앉은채로 그 누구를 爲하여 代代孫孫이 이땅의 두더지 노릇을 하려는가?⁴⁴⁾

심훈이 그린 농민은 두레날에는 곤죽이 되도록 술에 취하고, 유혈이 낭자하도

44) 『동아일보』 『筆耕舍雜記』 1936년 3월 15일.

록 싸움질하고, 평소에는 빈곤과 무지를 팔자 탓으로 돌리는 숙명론자였다. 위 「筆耕舍雜記」와 앞에서 살펴본 「原始共產時代의 遺風研究」의 시각은 아주 관이 하다. 농촌계몽가들이 운동 시작 전과 후에 가진 심정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따라서 두레의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이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두레꾼 되기

農社, 農廳, 農契, 農旗, 牧廳, 醱廳 등이⁴⁵⁾ 두레이듯이 金鼓契 또한 또한 두레다. 金鼓가 농악기의 다른 말이고, 두레와 농악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하고동 금고계를 두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산동 상부계가 금고계의 다른 말이었으므로 이 또한 두레이고, 자미동 두 계는 명칭에서 農事와 관련된 조직임을 알 수 있기에 두레임이 분명하다. 이같이 우리가 분석하는 4계는 모두 두레이고, 자료는 두레꾼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강진, 장흥 村老들은 ‘두레’ 두 글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⁴⁶⁾ 애초부터 이 지역에 두레라는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오래전에 사라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은 두레의 의미를 모른다. 두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과 경상도 지역 촌로 대부분은 두레의 의미를 모른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지역에서는 20세기 전반에도 이미 두레라는 말은 널리 통용되지 않았다.

두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두레꾼으로 칭하기로 한다. 네 단체는 모두 새로운 두레꾼[회원]을 받았다. 그 가운데 자미동 농계와 근농계만 새로 들어온 회원 수가 정확히 파악된다. 계원 24명으로 출범한 농계는 1917년부터 새 회원을 받았는데, 1942년까지 모두 55명이 새로 들어왔다. 계원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4명이 중수한 근농계는 이후 새 회원을 받았으나 계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1937년에 1명이 사망하고,⁴⁷⁾ 1940년에 1명이 出契함으로써⁴⁸⁾

45) 印貞植, 1943 앞의 책.

46) 교원대학교 이용기 교수에게 들었다.

47) 『更新勤農組合契案』昭和 12年, 50錢 朴贊柄 死亡喪賻下. 박찬병은 『更新勤農組合員氏名』에서 중수 멤버임이 확인된다.

48) 『更新勤農組合契案』昭和 15年, 11圓50錢 權鎬氏 出契下.

중수 멤버 2명이 빠졌으나 1948년 계원이 13명으로 확인된다. 즉 사망한 중수 멤버의 아들이 새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고동 금고계와 모산동 상부계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원이 증가했지만 그 구체적 실상을 확인할 수 없다. 통상 계원이 사망하면 그 자식이 들어오는데, 이를 ‘代入’이라고 한다. 즉 각종 계는 새로 들어온 멤버를 追入과 대입으로 구분한다.

대체로 代入員은 별도의 입회비를 내지 않고, 追入員은 입회비를 낸다. 추입원에게 입회비 명목으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았다. 자미동 농계는 1917년부터 줄곧 현금만 받았다. 그와 달리 모산동 상부계와 하고동 금고계는 현물과 현금을 섞어 받았다. 상부계는 1920년부터 追入錢을 받기 시작했다.⁴⁹⁾ 그 이전에는 追入費를 술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상부계는 1925년 김만현에게 進序代金を 받았는데,⁵⁰⁾ 상부계 전장기에서 확인되는 진서 관련 기록은 이것이 유일하다.⁵¹⁾ 상부계는 술로 받은 추입비를 전장기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추입비는 다음 하고동 사례에서 보듯이 술로 많이 냈다.

하고동 금고계는 창계된 해부터 追入費를 받았다. 추입비를 進貰[진서]라 했는데, 술을 받기도 하고 현금을 받기도 했다. 진세책을 통해 구체적 실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진세책은 매년 捧上記를 작성하고 있는데, 대체로 ‘進貰捧上記’라 명명했지만 가끔 ‘知面進貰捧上記’⁵²⁾라 이름하기도 했다. 그리고 ‘捧上’의 내용을 知面酒와 進貰酒로 구분해서 기록하기도 했다.⁵³⁾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知面酒와 대비되는 進貰酒는 진서주로, 知面酒와 진서주를 합쳐서 일컫는 進貰酒는 진세주로 쓰기로 한다.

진서는 進序,⁵⁴⁾ 進鋤⁵⁵⁾로 쓰기도 하는데, 진서주는 신입원들이 내는 술이다.

49) 『喪賻契傳掌記』 庚申年(1920) 11月 20日, 任泰玉追入錢 3兩.

50) 『喪賻契傳掌記』 乙丑年(1925) 11月 20日, 金萬鉉 進序代金 25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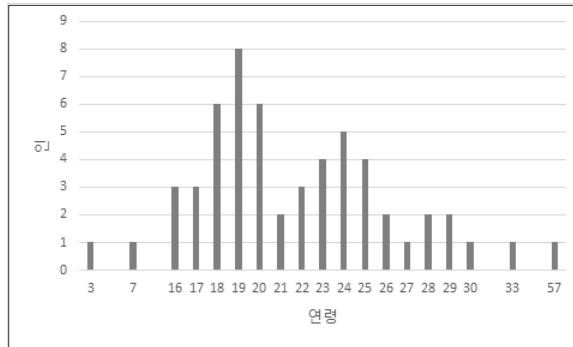
51) 『喪賻契傳掌記』 辛酉年(1921) 11月 20日, 三道進事代金 20兩. 상부계에서 進序와 進事を 혼용했다면 전장기에 나오는 사례는 두 개다.

52) 1905년, 1906년, 1912년, 1913년, 1914년.

53) 1844년, 1845년, 1903년, 1916년, 1946~1961년, 1963~1897년.

54) 『喪賻契傳掌記』 乙丑年(1925년) 11月 20日, 金萬鉉 進序代金 25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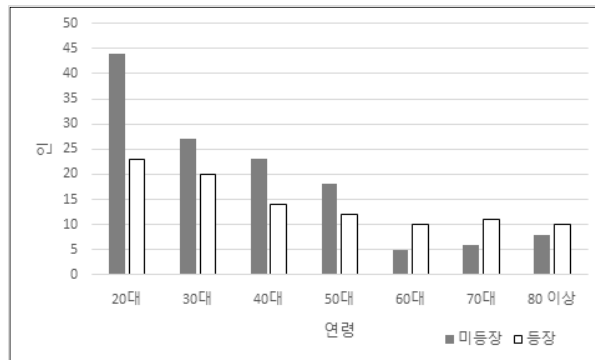
55) 印貞植, 1935 『朝鮮農業の近代的様相』, 西ヶ原刊行會.



<그림 2> 진서주 내는 나이

이러한 사실은 1946~1968년 진서주 현황을 분석해보면 잘 드러난다. 참고로 진세책은 1945년까지는 대체로 진서주와 지면주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진세주라고 기록했다. 진서주를 내놓은 사람은 84명인데, 이 중 1인만 2번 등장하고 나머지는 한 번만 나온다. 강창원은 1947·1949년에 진서주를 내놓은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 두 번 중 한번은 지면주를 진서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동일인이 연도를 달리하여 지면주와 진서를 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여러 해 지면주를 내놓은 사례가 많다. 84명 가운데 56명은 1960년대 호적에서 확인되는데, 진서주를 내놓은 나이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다.(<그림 2> 참조) 16~30세 사이에 자신이 원하는 때 가입할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18~20세 또는 23~25세 때 가입했음을 알 수 있다. 3세, 7세, 57세에 진서주를 내놓은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 신입원이 자식 혹은 아버지 이름으로 진서주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동민 가운데는 금고계에 가입하지 않은, 즉 진세주 명단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1960년대 작성된 하고동 호적에서 1968년 기준 20세 이상 남성은 231명 확인된다. 이 중 131명은 진세주 명단에서 보이지 않는다.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43.3%만 진세주 명단에서 확인되는 셈이다. 진세주 명단에서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주민은 20대가 44명으로 가장 많다.(<그림 3> 참조) 금고계가 1969년 이후에도 진서주를 봉상했다면 <그림 3>에 포함된 20대 가운데 진서주를 내는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즉 20대는 진서주 봉상과 관련된 분석에서 제



〈그림 3〉 1960년대 하고동 주민의 진세봉상책 등장 여부
* 비교: 2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함.

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30대 이상은 진서주 봉상 실상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0·40·50대는 진세주 봉상과 관련 없는 사람이 더 많다. 다만 60대 이상은 진세주 봉상기에서 확인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 1945년 이전 진세책은 진서주와 지면주를 통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진세주 봉상 명단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진서주를 내놓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아무튼 남성 壯丁의 절반 정도가 진서주를 내놓지 않았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한편 진서주를 내지 않은 사람 가운데는 1950·60년대 이사 온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다면 〈그림 3〉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실상을 일정 정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림 3〉은 진서주 관련 실상을 대체로 잘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집에서 1명 이상 진세주 봉상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데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호적은 74(호주 67 + 세대주 7) 집을 싣고 있는데, 진세주 봉상기에 이름을 올린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는 집이 59(전체의 79.7%) 호다. 구성원이 진세주 봉상기에서 확인되지 않은 15집 가운데는 노동력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 9집이 20세 이상 남성이 한 명밖에 없다. 아무튼 성인 남성 가운데 절반 정도는 금고계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계, 송계, 천방계 등과 같이 계원이 異姓으로 구성된 지역 단위 계는 특정 개인에게 가입을 강제할 수 없었던 사실⁵⁶⁾을 상기하면 하고동 금고계의 실상은 하등 이

56) 김건태, 앞의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상할 것이 없다. 이같이 금고계 가입 여부가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렸던 만큼 한 집에서 여러 명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구성원 2명 이상이 진제주 봉상기에서 확인되는 집이 27호(2명 14호, 3명 12호, 4명 1호)나 된다.

타리에 거주하면서 하고동 금고계에 가입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부재지주, 즉 하고동에 인접한 중고리, 삼인리, 성동리, 한학리, 한림리에 거주하면서 하고동 땅을 소유한 지주 가운데 진세주를 상납한 사람은 21명이다.⁵⁷⁾ 그리고 타리 거주자로 하고동 소재 전답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금고계에 진세주를 상납한 사람도 3명 확인된다.⁵⁸⁾ 이같은 사람은 더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1960~1968년 사이 진세주를 회사한 사람 가운데 17명은 1960년 작성된 하고동 호적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이들은 타리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세책이 전하는 실상은 1991년 강진군 병영면 하고동 사람들의 기억과는 상당히 다르다. 진세주 관련 하고동 사람들의 기억은 다음과 같다.

품앗이 : (진세주봉상기는-인용자) 과거 품앗이가 성행했을 때의 진세 내역이다. 마을주민 중에 18세 이상인 사람은 당연히 품앗이조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가입자는 탁주와 안주를 내면서 좌중에 인사를 한다. 그러면 좌상(품앗이조의 우두머리)이 우리와 함께 품앗이 끈이 되었다고 선언한다.⁵⁹⁾

진세책이 전하듯이 신입회원은 탁주[진세주]를 냈다. 그런데 “18세 이상인 사람은 당연히 품앗이조[금고계]에 가입해야 한다”는 표현은 18세 이상 남성은 의무적으로 금고계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진세책이 전하는 사실과 너무 다르다. 기억이 새로운 역사상을 만들어내는 전형을 보여준다.

금고계를 ‘품앗이조’로 기억하는 것은 ‘실제 역사’와 ‘기억의 역사’ 사이의 괴리가 더욱 큰 사례다. 진세책은 금고계 계원들의 노동, 즉 두레농사가 무상노동[품

57) 토지대장 부재지주 중 『農軍進貢捧上冊』에 등장하는 인물 - 중고리(김경삼, 김성곤, 김예두, 김학삼, 엄화관, 이기봉, 전용선, 정사홍), 삼인리(고성만, 김석진, 김정순, 이성옥), 박동리(김성엽, 박세준, 임계), 성동리(김화춘, 조근식), 한학리(엄주안), 한림리(김수연).

58) 『農軍進貢捧上冊』乙未年(1955), 2月 1日 翰林里 張相文 1東海 喜捨東, 翰林里 朴致奎 1東海 喜捨東.

59) 강진군, 1991 『康津郡 마을 史喪: 兵營面篇』.

앗이]이 아니라 유상노동이었음을 분명히 전한다. 진세책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丁亥年(1887) 10月 20日, 11兩4錢 兩年 禹役 未收條入.
 庚寅年(1890) 6月 15日, 禹役未收條 9兩2錢入.
 辛卯年(1891) 1月 20日, 己丑(1889) 軍役 未收入文 9兩2錢.
 辛卯年(1891) 6月 15日, 7兩2錢 昨年 禹役 未收條.

禹役은 運役[운력]의 다른 표기다. 미수조가 있다는 사실은 공동노동이 유상노동이었음을 의미한다. 하고동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두레농사[유상노동]가 금고계가 해체된 이후 활발해진 품앗이[무상노동]로 대체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실상과 다른 것은 아니다. 공동노동이 유상노동[두레농사]에서 무상노동[품앗이] 형태로 이행되었음을 병영면 道龍洞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1991년 그들은 품앗이 역사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품앗이 : 영농을 할 때 모심기, 밭메기, 쟁기질 등을 처음은 돈을 주고받았으나 일손이 귀해지자 거의 모든 작업을 품앗이로 많이 하게 되었다. 작업의 경과, 시간, 남·녀의 비율, 일의 종류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작업 전에 품앗이를 결정하고 작업하여 준다.⁶⁰⁾

예전에는 두레농사[유상노동]를 했으나 일손이 귀해지면서부터 품앗이[무상노동]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두레 조직과 두레꾼의 신분

계로 조직된 두레는 대체로 임원을 두는데, 그 명칭과 역할은 다양하다. 여기서 분석하는 네 사례 가운데 하고동 금고계가 임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한다. 금고계 임원은 각 1인의 座上 - 公員 - 執綱으로 구성된다. 좌상은 禩首⁶¹⁾라고도 했는데, 이렇듯 진세책은 금고계가 두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16년부

60) 위의 책.

61) 『農軍進貫捧上冊』 丁未年(1847) 6月, 禩首 姜(수결) 公員 金(수결).

〈표 4〉 하고동 금고계 임원 역임 현황

(단위: 인)

회	직책	좌상 (%)	집강 (%)	공원 (%)
18				1 (3.0)
16			1 (2.7)	
9		1 (2.4)		
8			1 (2.7)	1 (3.0)
6		1 (2.4)		
5		1 (2.4)		1 (3.0)
4		2 (4.8)	2 (5.4)	3 (9.1)
3		7 (16.7)	4 (10.8)	3 (9.1)
2		6 (14.3)	11 (29.7)	7 (21.2)
1		24 (57.1)	18 (48.6)	17 (51.5)
합계		42 (100)	37 (100)	33 (100)

터는 공원을 助使로 개칭했다. 금고계는 이들 임원을 통칭해서 契中⁶²⁾이라 칭했다. 이로부터 이들의 결정이 곧 두레의 공식 의견이 됨을 알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통상 1년인데, 오랫동안 임원직을 유지한 경우가 많지 않다. 진세책에서 성명이 확인되는 좌상은 42명(연인원 88명), 공원은 33명(연인원 87명), 집강은 37명(연인원 88명)이다. 대체로 절반 정도가 1회 역임했으며 3회 이하를 지낸 경우가 80%를 넘는다.(〈표 4〉 참조) 장기간 임원을 연임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예컨대 가장 여러 번 좌상을 역임한 강운행은 42세 때이던 1919년 좌상을 처음 맡아 1922년까지 연임한 다음 1937년 한해 좌상을 역임하고, 일 년 쉬었다가 1939~1942년까지 연임했다.

임원의 위상은 나이에서 확인된다. 40대 때 좌상을 4회나 역임한 강운행처럼 일부 임원은 1960년대 호적에서 확인되는데, 호적에서 확인되는 임원의 평균연령은 각각 52세, 43세, 40세다.(〈표 5〉 참조) 평균연령을 보면 집강은 후덕한 촌로가 맡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30·40대 좌상도 적지 않았다.(〈표 6〉 참조) 이같이 좌상은 경험과 삶의 지혜가 풍부한 50대 이상이 맡기도 했지만 젊은이도 지도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역임할 수 있는 자리였다.

62) 『農軍進貫捧上冊』 1927년, 1928년, 1929년, 1931년, 1932, 1933년, 1942년, 1943년.

〈표 5〉 하고동 금고계 임원 평균연령

(단위: 세)

직책 \ 연령	좌상 (연인원)	집강 (연인원)	공원 (연인원)
평균	52 (44명)	43 (30명)	40 (38명)

〈표 6〉 하고동 금고계 임원 초임 연령

(단위: 인)

직책 \ 연령	좌상 (%)	집강 (%)	공원 (%)
60대	2 (13.3)		
50대	4 (26.7)		
40대	5 (33.3)	2 (22.2)	2 (22.2)
30대	4 (26.7)	5 (55.6)	5 (55.6)
20대		2 (22.2)	1 (11.1)
10대			1 (11.1)
합계	15 (100)	9 (100)	9 (100)

금고계는 삼지창⁶³⁾으로 좌상의 권위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좌상이 삼지창을 쥐고 논두렁에서 서서 지휘하면 두레꾼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이다.⁶⁴⁾ 한편 집강과 공원은 30대가 주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대에 집강과 공원이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집강과 공원의 위상 차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집강이 20대이고 공원이 30대면 그들 사이에 엄격한 상하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좌상 - 공원 - 집강 사이에 엄격한 상하관계가 설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당시의 실상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대체로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즉 특정인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강에서 공원, 공원에서 좌상으로 자리를 바꾸었지만 간혹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했

63) 『農軍進貫捧上冊』, 甲辰年(1844) 5月 5兩7錢5分三枝槍一雙 造成下, 丙寅年(1686) 6月 15日 三枝槍時工6錢6分, 丙寅(1926) 11月 20日, 50錢三枝槍修繕料下.

64) 姜鋌澤, 1941 『朝鮮に於ける共同勞動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 『農業經濟研究』 17. 이 글은 박동성 옮김, 2008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YBM si-sa에 실려있다.

〈표 7〉 하고동 금고계 임원의 이동 경로

(단위: 인)

직책 \ 이동	집강 - 좌상	공원 - 좌상	공원 - 집강
하 → 상	8	7	8
상 → 하	1	3	2
하 ↔ 상			3
합계	9	10	13

〈표 8〉 하고동 금고계 임원과 대동계 임원의 관계

(단위: 인)

금고계 \ 대동계	좌상 (42인)	집강 (37인)	공원(33인)
동수 (55인)	11	1	2
집강 (52인)	3	0	1

다.(〈표 7〉 참조) 좌상을 한 다음에 공원 혹은 집강을 지내기도 하고, 공원을 지낸 다음 집강을 역임한 경우도 있다. 자미동 근농계 또한 임원의 상하관계를 잘 보여준다. 1934년 14인이 조합계를 갱신하면서 組合長, 副組合長, 總務 각 1명과 幹事 2명을 두는 규약⁶⁵⁾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간사를 1명 더 늘려 모두 6명의 임원[役員]을 임명했다.⁶⁶⁾ ‘전 조합원의 간부화’라는 표현이 생각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원들 사이에 엄격한 상하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두레 임원의 권위는 내부에서만 인정되었다. 즉 그들은 동중 제반사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한 사실은 하고동 금고계 임원과 하고동 대동계 임원[洞首, 執綱]의 관계를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표 8〉 참조) 금고계 인원 중에 대동계 임원을 역임한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금고계 집강과 공원 가운데 대동계 동수나 집강을 지낸 사람의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은 금고계의 洞內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진세책은 하민이 두레의 중

65) 『更新勤農組合規約』昭和 9年 2月 14日, 第一條 組合의 名義은 更新勤農組合이라 稱하야 組合長副組合長이 各一名 總務一名及幹事二名을 選定하야 左의 條項으로써 此을 組織함.

66) 『更新勤農組合規約』『更新勤農組合役員氏名』, 組合長 文權鎬 副組合長 金賣金 總務 金權相 幹事 崔德仁 金喆相 金廣平.

심이었음을 분명히 전한다. 1854년 진세책에는 진세주를 낸 10명의 명단이 기록되어있는데, 그중 9명은 이름만 적혀있고, 1명은 성명이 기재되어있다.⁶⁷⁾ 장흥·강진지역 각종 계 문서에 이름만 기재된 사람은 下民이다.⁶⁸⁾

두레 위상은 모산동 상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상부계 구성원 중 전장기에서 확인되는 임원은 公事員과 有司다. 공사원은 1886~1937년까지 매해 존재한다. 그에 비해 유사는 존재 기간도 짧고, 명칭도 바뀐다. 1896년 下有司가 처음 등장하여 1914년부터 사라진다. 그 후 1919년에 有司가 나타나지만 1921년부터 자취를 감춘다. 장흥과 강진 지역 여러 계에서 下有司는 통상 下民과 관련이 깊다.⁶⁹⁾ 이는 상부계가 하민들 중심의 두레였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9세기 후반 모산동 上民들은 상부계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했다. 즉, 동계에서 위상이 높은 공사원은 상부계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양반 행세하는 上民은 징, 팽과리, 장구 등을 치며 마당밧기를 하거나 한여름 피약별 아래서 풀 뽑기를 하는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던 것이다. 실제로 상부계 참여 인원 가운데 상당수는 19세기 동계에서 하민으로 분류된 사람이거나, 그들이 사용하는 이름의 격이 낮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⁷⁰⁾

상부계는 하민들 중심의 계였기 때문에 數理에 밝고 지도력이 있는 계원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하유사는 특정인이 오랫동안 역임했다.(<표 9> 참조) 하유사를 역임한 사람은 21개년 동안 3인뿐이다. 그런데 洞 단위에서 만들어진 각종 계 자료들의 한자 표기가 다소 혼란스럽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하유사를 5회 역임한 김복용(金卜用)과 14회 역임한 김봉용(金鳳龍, 金鳳用)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상부계 임원 중에 위상이 더 높은 공사원은 대체로 1년만 역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67) 『農軍進貫捧上冊』 甲寅年(1854), 仁太, 宅用, 宗玉, 致永, 伏興, 有貴, 忠云, 姜尙文, 勝暉, 宗官.

68) 이용기, 앞의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김건태, 앞의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69) 이용기, 앞의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70) 김건태, 앞의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표 9〉 모산동 상부계 임원 역임 현황

(단위: 인)

직책 \ 횟수	1	2	3	5	6	14	18	합계
공무원	12	3	1	1	1		1	19
하유사	1			1		1		3

上民이 주도한 두레도 있었다. 자미동 농계가 그것이다. 농계 창계원은 24명인데, 거주 농가[戶]의 절반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15년 작성된 구룡리 토지대장⁷¹⁾에서 자미동에 속하는 대전[집터]은 39필지다. 20세기 초 여타 마을의 경우 1필지에 2호[자연가] 이상의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농계 창설 당시 자미동에는 50호 정도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장흥·강진 지역에는 한 호에서 1명만 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계가 적지 않았음을⁷²⁾ 감안하면 24명은 각기 다른 호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가운데는 경제력이 비교적 넉넉한 사람도 있었다. 24명 중 사정 당시(1915년) 구룡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5명이고, 그 중 代田[집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13명⁷³⁾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⁷⁴⁾이 적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미동 농계는 경제력이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이 주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계는 동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 같다. 1920년대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농계 계원들은 농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수다. 1934년 갱신 당시 계원 14명 가운데 농계원은 5명에 불과하다. 참고로 24명에서 출발한

71) 『구룡리지적원도』, 국가기록원 소장.

72) 『下古里致喪禋則』, 第3條 本禋의 禋員은 下古里에 居住한 者로 恧. 但 元戶에 限하여 禋員의 義務가 有恧. 이 계는 1932년 7년 6월에 창설되었고, 창계원은 71명이다.

73) 김수현(790번지), 김오식(791번지), 김철식(775번지), 김한무(792번지), 김한벽(824번지), 박무상(804번지), 박은상(751번지), 박중완(702번지), 박진상(683번지), 박찬인(779번지), 박한영(699번지), 유재섭(697번지), 장금곡(746번지).

74) 김한벽 16필지, 박찬인 12필지, 유재섭 12필지, 장금곡 12필지, 김오식 10필지, 김수현 9필지, 박중완 8필지, 박진상 8필지, 박한영 7필지, 박은상 6필지, 김철식 3필지, 김한무 3필지, 김한병 3필지, 박무상 3필지, 문권호 1필지.

농계는 1934년까지 65명의 신입계원을 받았다. 1934년까지 창계원이 모두 살아 있었다면 당시 계원은 89명이다. 아무튼 근농계는 상민들이 주도하는 농계에 불만을 품은 농계원과 아예 농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설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 마을에 여러 개의 두레가 공존하는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1943년 강원도 원주 艮峴洞에는 두레가 6개나 있었다.⁷⁵⁾

4. 수입 측면에서 본 두레의 성격

1) 수입 현황

(1) 하고동 두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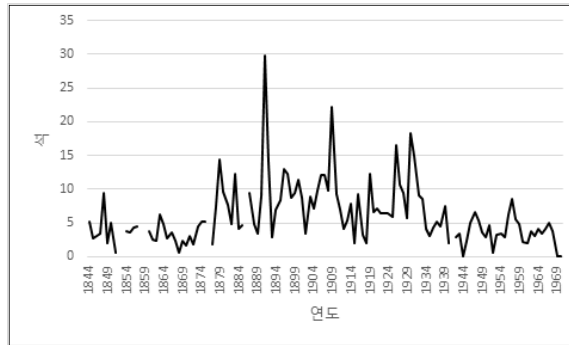
네 두레 모두 자세한 전장기를 남긴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재정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들은 전장기를 작성할 때 錢, 酒, 穀物을 섞어서 기록했다. 酒는 대체로 代錢價가 확인되기 때문에 錢으로 환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錢[명목가치]을 기준으로 재정 실상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租[실질가치]를 기준으로 재정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장흥군 용산면 상금동 백씨 문중에서 남긴 門契와 書契의 租 作錢價를 활용하여 錢을 租로 환산하였다.⁷⁶⁾ 주지하듯이 작전가는 시장가와 일정 정도 괴리가 있고, 계마다 作錢律이 다르다.⁷⁷⁾ 하지만 특정 계에서 결정한 작전가만을 사용한다면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하고동 금고계 1844~1970년 총수입은 조 734.1석이고, 수입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 120개년⁷⁸⁾의 연평균 수입은 6.1석이

75) 鈴木榮太郎, 1943 『韓國農村社會踏查記』(梨大社會學科 編譯, 1961, 梨大出版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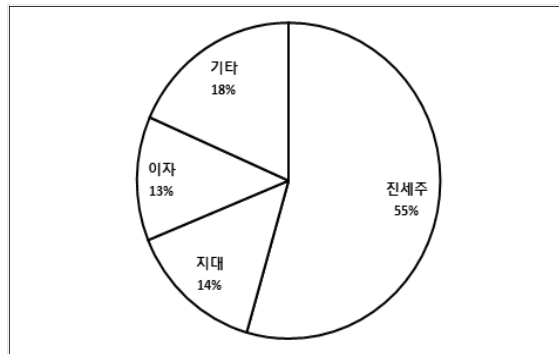
76) 김건태, 2010 『조선후기 契의 재정운영 양상과 그 성격』 『한국사학보』 38; 김건태, 2013 『19세기 회계자료에 담긴 實像과 虛像』 『고문서연구』 43. 상금동 수원백씨 門契 작전가를 기본으로 하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해는 상금동 書契 작전가를 활용하였다. 두 자료 모두 결락된 연도(1941, 1959, 1967)는 앞뒤 해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77) 김건태, 앞의 『19세기 공동납과 마을자치』.

78) 1852년, 1853년, 1858년, 1859년, 1876년, 1886년, 1941년 수입 관련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그림 4> 1844~1970년 하고동 금고계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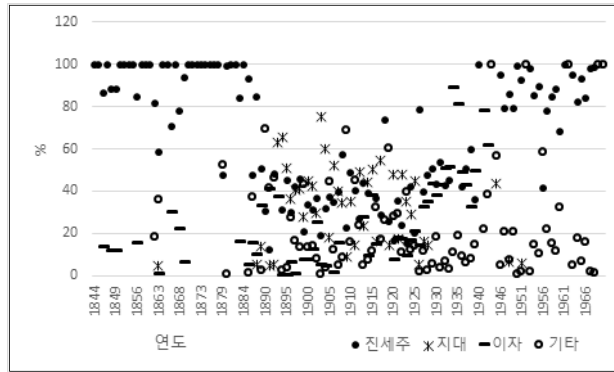


<그림 5> 하고동 금고계 수입의 항목별 비중

다.79) 수입은 연도별로 차이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략 세 시기로 구분된다.(<그림 4> 참조) 1877년 이전, 1878~1933년, 1934년 이후, 즉 창계 후 약 30년간 체제정비를 거쳐, 55년 정도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35년 정도 정체 상태로 머물다가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고계 수입은 항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그림 5> 참조) 진세주가 차지하

79) 진세주 1동이의 대전가를 밝혀놓지 않은 연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술을 조로 환산했다. 첫째, 1940년까지는 앞뒤 연도 가치의 평균값을 적용했다. 예컨대 대전가가 확인되지 않는 1850년 진세주 가치는 1849년과 1851년 가치의 평균값을 적용했다. 1844~1940년까지 진세주 기록이 남아있는 88개년 중 33개년의 진세주 가치는 앞뒤 연도의 평균값이다. 둘째, 1946년부터는 진세주 1동이의 代錢額을 알 수 없다. 그래서 1844~1945년까지 1동이 가치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그림 6〉 연도별로 본 하고동 금고계 수입의 항목별 비중

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금고계 답 지대도 한 몫을 차지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금고계 구성원이 공동농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고계 답을 모두 병작으로 경영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이자 수입이다. 금고계도 여타 계처럼 적극적으로 식리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금고계가 계답을 병작으로 경영하고, 식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사실은 구성원이 경제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의미한다. 기타 항목에서 눈에 겨볼 점은 契物[轎子, 冠帶, 遮日] 대여세와 踏場[연초 마당밭기] 수입이다. 동중이 계물을 관리하고, 답장전을 수입으로 잡기도 한⁸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하고동 금고계는 동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金鼓가 농악기의 다른 말임을 감안하면 수입에서 농악과 관련된 부분[공동농작업, 답장]의 비중이 미미하다는 사실은 예상 밖이다. 전체에서 공동농작업[운력] 수입이 0.08%, 답장 수입이 0.7%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참여자들이 두 항목의 수입 대부분을 각자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⁸¹⁾

수입에서 개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기에 따라 변한다.(〈그림 6〉 참조) 재정규모 측면에서 ‘체제정비기’와 ‘정체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진세주가 압도

80) 하고동은 동중에서 遮日을 관리하고, 踏場錢을 징수하기도 했다. 『금전출납부』 1, 丙子(1936) 3月 14日 講信 46円 72錢 踏場醜出金入, 丁亥(1947) 10月 14日 講信 234圓 18錢 遮日修繕費.

81) 자세한 내용은 4장 3절 참조.

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항목구성도 비교적 단순하다. '체제정비기'에는 진세주와 이자, '해체기'에는 진세주와 기타 항목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금고계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1890년대~1920년대에는 지대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이자와 기타 항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수입항목의 다양성이 확대될 때는 금고계 활동이 왕성하고, 다양성이 약할 때는 활동이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고계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재정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금고계와 조선후기 각종 계는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즉 조선후기 각종 계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재정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다.⁸²⁾

지대는 금고계와 동중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즉 금고계는 1857·1875년 畓, 1887·1890·1893년 田을 매입하였다.⁸³⁾ 그런데 지대수취는 1888년부터 매해 이루어진다. 이는 금고계에서 매입한 땅의 지대를 1887년까지 다른 곳에서 수취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1929년까지 금고계는 전답을 매도한 적이 없는데, 1929년부터 지대수입이 잡히지 않는다. 이는 1929년부터 지대수취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금고계에서 지대를 수취하지 않은 해는 서계⁸⁴⁾ 혹은 동중⁸⁵⁾에서 지대를 수취했다. 이는 금고계가 독자적인 재정운영권을 가지지 못했음을 뜻한다. 금고계는 동중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2) 모산동 두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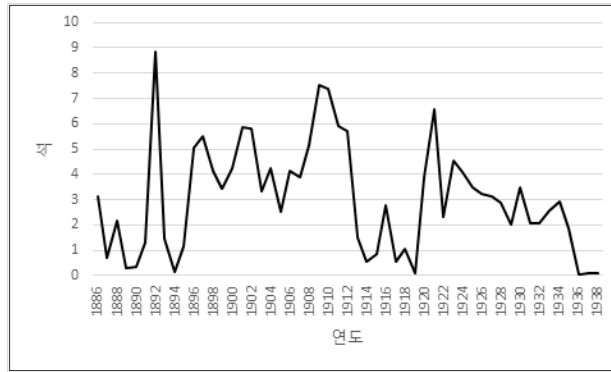
1886~1938년 모산동 상부계 수입은 합계 162.1석이고, 연평균 3.1석이다. 재정

82) 이용기, 앞의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김건태, 앞의 『19세기 공동납과 마을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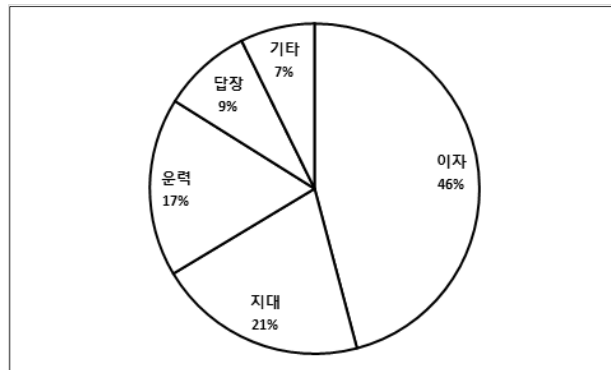
83) 『農軍進貢捧上冊』 丁巳年(1857) 閏5月 25日, 4兩5錢買畓價; 乙亥年(1875) 6月 15日, 5兩7錢6分畓價下; 丁亥年(1887) 10月 20日, 28兩7錢2分 安字田7斗落買許條; 庚寅年(1890) 6月 15日, 12兩 安字田4斗落加條; 癸巳年(1893) 11月 25日, 55兩 令字田15斗落價下.

84) 예컨대, 思字畓 3두락 지대의 경우, 1871년에는 서계에서 수취하고, 1893년 이후에는 금고계에서 수취했다. 『古城書稷案』 辛未年(1871) 正月 15日, 思字畓 3斗落 正租 1石; 『農軍進貢捧上冊』 癸巳年(1893) 11月 20日, 思字畓 3斗落 中稻 18斗.

85) 『洞有土地小作料納入簿』에는 1931~1947년 畓 25斗落, 田 27斗落 지대수취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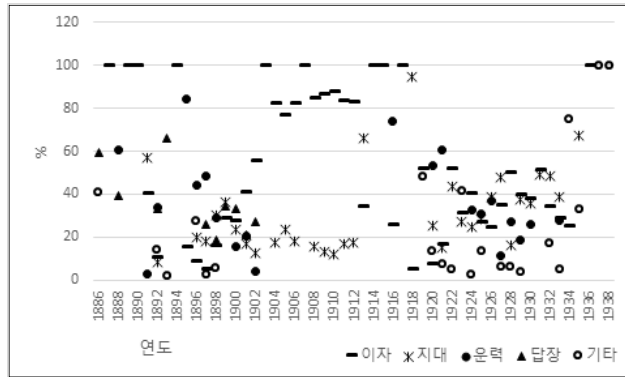
〈그림 7〉 1886~1938년 모산동 상부계 수입 현황



〈그림 8〉 모산동 상부계 수입의 항목별 비중

규모가 하고동 금고계의 절반 정도다. 수입 추이는 연도에 따라 큰 변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5개 시기로 구분된다.(〈그림 7〉 참조) 창계 이후 1895년까지 약 10년간 정비기를 거쳐 1896~1912년까지 약 25년 동안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1920~1934년까지 부흥기를 경험하고 나서 1935년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1938년에 해체된다. 이같이 상부계는 병합 이후 몇 년간의 침체기를 겪었는데, 합방 이후 짧은 침체기는 하고동 금고계도 경험했다.

상부계 수입 또한 하고동 금고계처럼 항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그림 8〉 참조) 수입의 절반 정도가 이자 수입이다. 그다음이 지대, 運役, 踏場(마당밟기) 순이다. 상부계도 하고동 금고계처럼 계답을 소작인에게 대여했다. 계답을 직영하지 않은 상부계는 두레꾼[계원]에게 개별 지주가의 공동농작업, 즉 運役に 참



〈그림 9〉 연도별로 본 모산동 상부계 수입의 항목별 비중

여할 것을 강요했다. 運役은 運力, 禹役, 出役 등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운력으로 쓰기로 한다. 운력은 공동노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 지역 사람들은 ‘울력’으로 읽는다.⁸⁶⁾ 상부계에서 운력전을 받았다는 사실은 두레꾼이 참여한 공동농작업이 유상노동이었음을 의미한다. 공동농작업이 유상노동이었기 때문에 계답을 소작으로 대여했던 것이다.

수입에서 개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기에 따라 변한다.(〈그림 9〉 참조) 재정적 측면에서 부흥기가 시작되는 1920년 이전까지는 이자 수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1919년까지 총수입의 52.9%가 이자 수입이다. 부흥기 이후에도 이자 수입이 많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지대로 전체의 30.7%를 점한다. 여러 항목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재정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금고계는 1938년 동계에 편입됨으로써 해체된다. 동중은 1935년도부터 금고계 해체를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금고계 수입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계답을 1935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동중에 편입시켰다.⁸⁷⁾ 상부계 또한 하고동 금고계처럼 동중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3) 자미동 두레

자미동 농계는 수입과 지출 면에서 볼 때 1944년 이후에는 활동이 거의 중단

86) 이용기, 앞의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87) 『洞中年下記』 乙亥年(1935) 11月 20日, 洞 喪賻契畚 2斗落 賣却代 1050兩.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내용이 소략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1943년도까지 분석하기로 한다. 29년 동안 농계 수입은 합계 47.7석이고, 연평균 1.6석이다. 하고동, 모산동 두레에 비하면 활동이 저조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재정 건전성도 양호하지 못했다. 이자 수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 항목별 비중은 이자 수입이 88.2%, 신입[追入]費 4.6%, 기타 3.4%다. 한편 기타 수입에는 운력과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⁸⁸⁾ 농계는 농작업, 洞閣 건립 등의 공동노동을 수행했는데, 운력에 불참한 계원들에게 闕錢[벌금]을 받았다. 이렇듯 농계에서 수행한 공동농작업은 유상노동이었다.

자미동 勤農契는 인원은 적었으나 재정 면에서 볼 때 농계보다 훨씬 왕성하게 활동했다. 11년 동안 수입은 합계 59.8석이고, 연평균 5.4석이다. 연평균 수입이 농계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근농계는 수입구조 면에서 여타 세 두레와 매우 다르다. 수입의 항목별 구성을 보면 農事 81.0%, 이자 13.9%, 기타 5.1%이다. 농사와 관련된 수입 대부분은 동답을 소작하여 얻은 것이고, 일부는 근농계답 소출이다. 근농계는 1941년까지 동답을 소작하였고,⁸⁹⁾ 1939년 3월 계답 8승락을 구입⁹⁰⁾하여 줄곧 공동경작했다. 이같이 근농계는 계원들의 무상노동으로 동답을 소작하고, 계답을 경작했다. 한편 근농계는 유상노동, 즉 운력도 실시했다.⁹¹⁾ 그런데 근농계에서 받은 운력대금은 딱 1회뿐이다.

2) 진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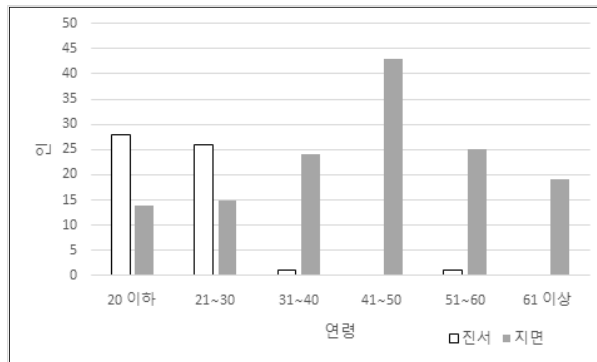
앞에서 진세주는 진서주와 지면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진세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면주의 실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진세책은 지면주에 대

88) 『農稷案』, 甲寅年(1914) 7月 7日 耘草錢8匁入; 丁丑年(1937) 6月 15日 昨年折草代金42兩1分入; 戊寅年(1938) 6月 15日 2圓10匁闕錢入; 辛巳年(1941) 6月 15日 洞閣出役闕錢9圓35匁; 癸未年(1943) 6月 15日 9圓春期闕錢入.

89) 1941년과 1942년 禾穀 판매대금이 크게 차이 나는데, 이는 1942년부터 동답 소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更新勤農組合契案』 昭和 16年(1941) 172圓65匁禾穀及蒿放賣代, 昭和 17年(1942), 22圓禾穀代.

90) 『更新勤農組合契案』 昭和 14年(1939), 255円 畝8升落 3月分 買受代金.

91) 『更新勤農組合契案』 昭和 12年(1937), 30円19匁 共同出役請負賃金.



〈그림 10〉 진서·지면주 상납자 연령

해 ‘以上 雇人條’, ‘以下 各戶雇入酒秩’, ‘雇人’, ‘雇’, ‘喜捨’⁹²⁾ 등으로 설명해 두었다. ‘고인’과 관련된 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면주를 내는 주체가 雇人 자신인지, 고인을 쓴 사람인지가 불분명하다. 진세책 지출면을 살펴보면 雇人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진세책은 두레꾼을 雇軍, 雇人, 農軍으로 칭했다.⁹³⁾ 지면주는 두레꾼들이 내는 술임을 알 수 있다. 진서주와 지면[낮알이]주를 낸 사람의 나이를 비교해 보아도 지면주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그림 10〉 참조) 진서주는 대부분 30세 이전에 상납했고, 지면주는 79.3%가 30세 이후에 희사했다. 대체로 지면주를 낸 사람들의 나이가 더 많다.

20세 이전에 지면주를 희사한 사람도 있다. 그러한 사람은 〈그림 10〉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왜냐하면 〈그림 10〉은 1947년 이후 진세책만 분석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금고계는 1945년까지 진세책을 정리할 때 진서주와 지면주를 구분하지 않고, 둘을 통합해서 진세주로 명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18~20세 또는 23~25세 때 금고계에 가입했음을 상기하면 20세 이전에 지면주를 희사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고동 190번지에서 호주인 할아버지 강민석(1891년 생), 아버지 강영운(1923년 생), 숙부 강영배(1925년 생)

92) 『農軍進貢捧上冊』 丁亥年(1947) 2月 1日, 以上 雇人條; 戊子年(1948) 2月 1日, 以下 各戶雇入酒秩; 辛卯年(1951) 2月 1日, 雇人; 癸巳年(1953) 2月 1日, 雇; 甲午年(1954) 2月 1日, 雇; 乙巳年(1965) 4月 14日, 喜捨.

93) 『農軍進貢捧上冊』 辛丑年 9月 25日, 2兩 雇軍春三月遊山時下; 己巳年(1929) 11月 20日, 6圓15錢 雇人春遊時下; 乙丑年(1925) 11月 20日, 5圓9錢 農軍遊山時物料下.

등과 함께 생활하던 강운수(1943년 생)의 사례는 지면주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강운수는 13세 때인 1953년 2월 강신 때 처음 지면주를 내기 시작하여 19세가 되던 1959년까지 매해 회사했다. 그리고 1960년 한 해를 쉬 다음 1961년 진서주를 상납하고 금고계에 가입했다. 가입 후에는 한참 동안 지면주를 내지 않다가 1967년에 1동이를 회사했다. 나이 어린 강운수가 온품[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면주를 회사했음을 알 수 있다. 나이 어린 사람은 대체로 농사일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레꾼이 되기 위해서는 술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⁹⁴⁾ 실제로는 그의 부모가 술을 회사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숙련된 농사꾼이었던 강운수의 아버지나 숙부는 진세책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한편 강운수는 매우 특이한 사례다. 통상 진서주를 먼저 상납하고 나서 지면주를 회사한다. 예컨대 김남준(1937년 생)은 21살이 되던 1957년에 진서주를 상납하고, 1967·1968년에 지면주를 회사했다.⁹⁵⁾

두레꾼들이 知面[낮알이]주를 회사하는 관행은 20세기 중엽까지 경상도에 있었다. 송석하는 그 풍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農廳의 主催下에 共同營農 團體인 두레를 組織하여 各會員은 다른 會員의 勞力을 必要할 때 無時로 얻을 수 있고 다른 會員은 勞力을 언제든지 提供할 義務를 負하며 또는 會員外에 까지라도 勞力을 供給하고 報酬를 受하며 會員에게 提供한 勞力까지라도 換算해서 一定한 時日에 (所期의 目的을 達成한 後) 總計算을 하여 개도 잡고 술도 걸러서 하루를 愉快하게 보내는 잔치가 『나다리』라고 한다.⁹⁶⁾

송석하가 관찰한 나다리[낮알이] 때의 술은 하고동 금고계처럼 두레꾼 개인이 회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농작업 수입에서 마련한 것이다. 공동노동의 보수로 장만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금리 금고계는 공동농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진세주를 받기도 하고 끝낸 후

94) 姜鋌澤, 앞의 『朝鮮に於ける共同勞動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

95) 『農軍進貫捧上冊』 丁酉年(1957) 11月 14日, 知面酒 …… 進貫 …… 金南準: 丁未年(1967) 4月 14日, 知面酒秩 …… 金南俊氏(濁酒 1斗): 戊申年(1968) 4月 14日, 知面酒 …… 金南俊氏(濁酒 1斗)

96) 송석하, 1960 『한국민속고』, 일신사.

에 받기도 했다. 금고계는 1년에 2차례 행한 강신 때 진세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했다. 1차는 유두날 많이 했고, 2차는 11월에 많이 했다. 1914년까지는 대체로 6월 15일 유두날 진세주를 받았다. 여기에는 約定한 것도 포함되었다. 대부분 유두 강신 때 진세주를 냈지만 일부는 정월에 이미 냈고,⁹⁷⁾ 일부는 후일 진세주를 내겠다고 약정했다. 금고계는 유두날 약정받은 진세주를 가을 금고계 講信, 洞會, 大同契會, 11月 禾穀 捧上 때 받았다.⁹⁸⁾ 일부는 유두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약정한 액수의 일부만 내기도 하고,⁹⁹⁾ 전부를 내지 않기도 했다.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어려 공동농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¹⁰⁰⁾ 한편 금고계는 內規를 정하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애썼다. 내규를 어긴 두레꾼에게는 罰酒를 징수하기도 했다.¹⁰¹⁾ 그리고 진세주를 내겠다고 약정한 사람이 공동농작업에 참여하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끝까지 推尋했다. 금고계는 1991년 6월 15일 박봉일의 밀린 진세주 3년치를 한꺼번에 받아 내기도 했다.¹⁰²⁾

97) 丙辰年(1856) 盧萬太 1海, 李宗官 1海, 口淡金 1海 (以上 3海) 正月日 洞畚 防川時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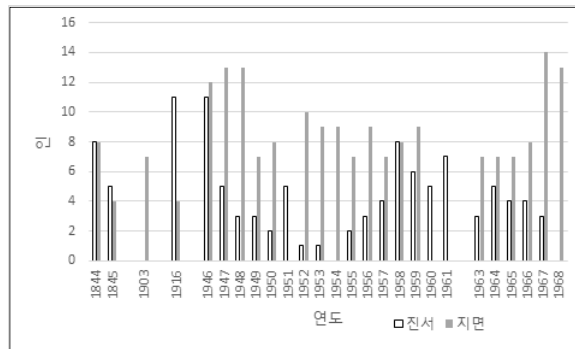
98) 『農軍進貫捧上册』 甲午年(1894) 6月 15日 洪一洙 1海 代錢2兩 11月 25日上, 馬同允 1海 代錢2兩 11月 25日上; 己亥年(1899) 6月 15日 李在根 酒1海 洞講信上, 嚴香奎 2海內 1海上 1海至講信上; 甲辰年(1904) 6月 15日 嚴唱奎 酒1海 9月大同契上, 李俊永 酒1海 11月禾穀捧上時上; 丙午年(1906) 6月 15日 金秉學 酒1海 11月上; 癸丑年(1913) 6月 15日 金奉春 酒1海 秋講信上, 李重熙 酒1海 春講信行上.

99) 『農軍進貫捧上册』 癸亥年(1863) 6月 15日 李應信 9錢內5錢上, 金孟甫 9錢內5錢上, 淡采 9錢內5錢上; 丁卯年(1867) 6月 15日 金愍文 1兩3錢內1兩上, 朴昌洪 1兩3錢內1兩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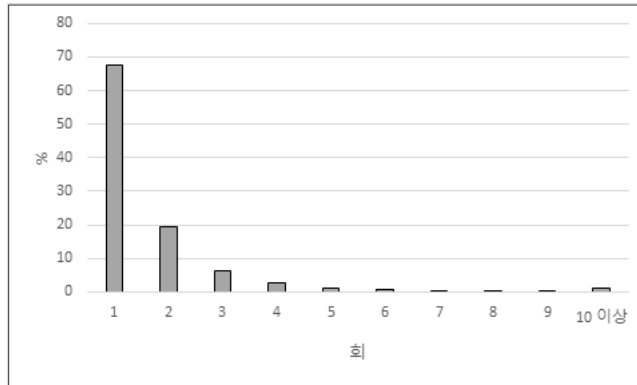
100) 『農軍進貫捧上册』 壬辰年(1892) 6月 15日 金敬三 1海 代1兩5錢 身病, 李己奉 1海 代1兩5錢 再錄, 朴東允 1海 代1兩5錢 未盛. 이해 금고계는 16명에게 진세주를 징수했는데, 이 들 3명에 대해서는 꺾쇠로 표시하고, 나머지 13명에게는 '上'이라 기재했다. 그리고 이들 3명의 진세주 대전을 포함하여 수입금을 합산한 다음 '4兩5錢 3名酒條下'로 처리했다. 즉 3명의 진세주는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것이다.

101) 『農軍進貫捧上册』 丙戌年(1886) 6月 15日 姜德凡 酒1海2兩 揭罰, 李己鳳 酒1海2兩 揭罰, 鄭弘順 酒1海2兩 揭罰.

102) 『農軍進貫捧上册』 辛亥年(1911) 6月 15日 朴奉一 (進貫)舊條 9兩(入).



〈그림 11〉 하고동 금고계 진서·지면주 봉상 현황



〈그림 12〉 개인별 진세주 상납 현황

금고계는 진서와 지면 명목으로 술을 받았는데, 1년 단위로 보면 지면주를 내는 사람이 대체로 더 많았다.(〈그림 11〉 참조) 합계는 진서주 상납자가 109명, 지면주 회사자가 200명이다. 연간 신생아 수를 고려해 보면 여러 명이 금고계에 가입하는 연도는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진세책은 일부 연도에 한해 진세주를 진서주와 지면주로 구분해 두었지만 여타 연도의 진세주도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소개한 강운수처럼 10회 이상 진세주를 회사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그림 12〉 참조) 844명 가운데 1회 상납한 사람이 571명(67.6%)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지면주만 회사한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두레에 가

〈표 10〉 1845년 1인당 진서·지면주 상납량

(단위: 인)

성격 \ 물종	酒		代錢	
	1東海	2東海	0,5兩	1兩
진서		2		3
지면	3		1	

입할 때 진서주를 내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강명권은 50세가 되던 1947년 2월에 지면주를 회사했는데, 그는 이전에 진세주[진서+지면]를 낸 적이 없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순전히 신입회원의 의사에 맡긴 것도 아닌 듯하다. 강권했을 가능성이 있다. 진서주를 납부한 사람이 10명이 넘는 해가 있는 데서 그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1회 다음은 2회 상납한 사람인데, 165명(19.6%)이다. 두레꾼들은 진세주는 1회만 회사해도 무방하고, 2회를 회사하면 체면치레를 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상 회사하면 인심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진서주는 나이 어린 신입회원이, 지면주는 나이 많은 기존회원이 냈다. 금고계는 왜 굳이 진세주를 진서와 지면으로 구분했을까? 술의 양이 달랐기 때문이다.(〈표 10〉 참조) 1인이 부담하는 술의 양은 진서가 지면의 2배다. 농사일이 서투른 젊은 사람을 온품으로 인정해 주면서 입사턱을 제대로 받았던 것이다. 입사턱은 1인당 술 2동이 혹은 돈 1냥이었다. 입사턱이 신입 두레꾼에게는 꽤 큰 부담으로 와닿았을 것이다. 상금동 백씨 문중이 1845년 벼 1석을 2.6냥으로 작전하였음을 감안하면, 입사턱은 벼 8두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진서주 양이 과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듯하다. 금고계는 1925년 11월 20일에 열린 강신 때 큰 결단을 하게 된다. “지금부터 冠[성인]인지 童[미성년]인지를 따지지 않고 진세를 술 1동으로 한다”¹⁰³⁾는 결정을 문서로 남겼다. 이 결정은 비교적 잘 이행되었다. 술 2동이[東海]를 납부한 사람은 1925년까지는 17.1%였으나 1926년 이후에는 2.2%에 불과했다.(〈표 11〉 참조) 그 결과 신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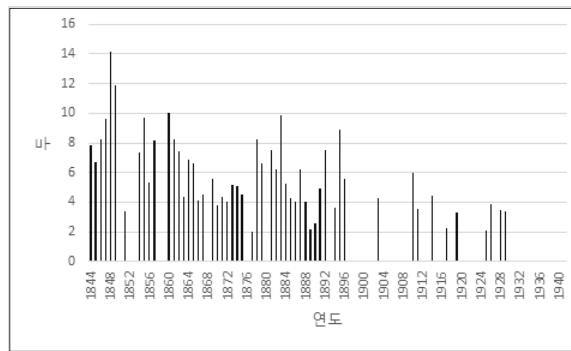
103) 『農軍進貫捧上冊』乙丑年(1925) 11月 20日, 自今爲始 進貫上 冠童을 無論하고 酒 壹海로 完定함.

〈표 11〉 개인이 연간 상납한 진세주 현황

(단위: 인)

연도	동이					
	0.5	1	1.5	2	3	합계
1925년 이전	6	562 (81.9)	1	117 (17.1)		686 (100)
1926년 이후		395 (97.8)		9 (2.2)	1	405 (100)
합계	6	957 (87.7)	1	126 (11.5)	1	109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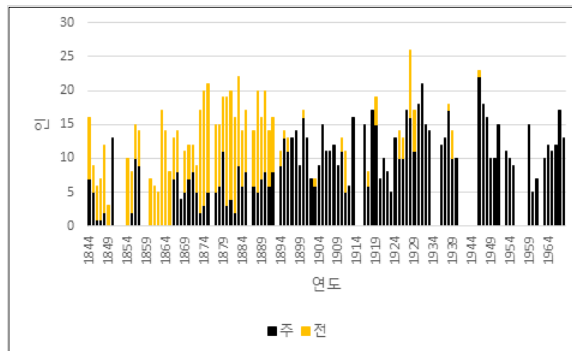
* 비고: () 안 숫자는 %임.



〈그림 13〉 1인이 납부한 진세주 가치

원은 진세주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그림 13〉 참조) 1인이 납부한 진세[진서+지면]주의 평균 가치는 1925년까지 벼 5.9두였고, 1926~1928년까지 3.6두다.

1926년 이후에도 진세주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레꾼들은 진세주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가졌던 것 같다. 금고계는 1930년대 언젠가 진세주 1동이의 양을 크게 줄여준 것으로 보인다. 1940·1941년 진세주 1동이의 가치는 벼 0.1두에 지나지 않았다.(액수가 적어 〈그림 13〉에서 보이지 않는다) 얼마 후 적은 양의 신입택에 대해서도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세주와 지면주 폐지 시기가 다른 데서 그간의 사정을 읽을 수 있다. 1966년까지 진서·지면주를 모두 받았으나 1968년에는 지면주만 거두었다. 두레에 대한 젊은이들의 거부감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에는 두레 자체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거부감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대동계는 1968년 겨울 강신 때 지면



〈그림 14〉 하고동 금고계 1844~1968년 진세주 성격

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¹⁰⁴⁾ 금고계는 1969년부터 진세주를 봉상하지 않았다. 125년 동안 지속되어 온 진세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는 곧 하고동 금고계, 곧 두레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고계는 1970년 4월 14일 강신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멈추었다.

금고계는 왜 진세주를 거두었을까? 그리고 두레꾼들은 왜 부담이 되는 진세주를 묵묵히 내놓았을까? 진세주를 거두어야만 금고계 재정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금고계는 진세주를 술 또는 돈[代錢]으로 받았는데, 1892년까지는 돈을 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그림 14〉¹⁰⁵⁾ 참조) 1892년까지 연인원 460명에게 진세주를 받았는데, 그중 302명(65.7%)에게는 돈으로 받았다. 이 돈은 금고계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 1892년까지 금고계 현금 수익의 53.5%가 진세주 代錢이었다. 금고계는 재정이 안정되자 진세주를 술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금고계 재정은 1879년부터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1890년대 들어 수입항목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104) 『農軍進貢捧上册』癸酉年(1969) 4月 14日, 西紀 一九六八年 大同契 決議에 依하여 洞中 知面酒를 廢止기로 議決함.

105) 술과 돈의 구분이 없는 1914년, 1956~1958년은 그림에서 제외했다.

〈표 12〉 금고계 임원의 진세주 상납 현황

(단위: 인)

진세주 \ 직책	좌상		집강		공원	
상납자	24	(57.1)	23	(62.2)	23	(67.6)
비상납자	18	(42.9)	14	(37.8)	11	(32.4)
합계	42	(100)	37	(100)	33	(100)

* 비교: () 안 숫자는 %임.

〈표 13〉 하고동 각종 단체원의 진세주 상납 현황

(단위: 인)

단체 \ 진세주	동계임원 (1846~1969)		금고계 전유사		서계원 (1846~1925)		동계원 (1846~1969)		치상계원 (1932)	
상납	29	(32.2)	50	(40.0)	103	(43.6)	165	(54.1)	43	(60.6)
비상납	61	(67.8)	75	(60.0)	133	(56.4)	140	(45.9)	28	(39.4)
합계	90	(100)	125	(100)	236	(100)	305	(100)	71	(100)

* 비교: () 안 숫자는 %임.

진세주는 금고계 임원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금고계 임원 중에는 진세주를 내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 진세주를 내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좌상 - 집강 - 공원 순으로 높다.(〈표 12〉 참조) 이는 공동농작업을 할 때 바지를 걷어붙이고 눈에 들어가 모내기를 하거나 호미를 들고 김매기를 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두레의 임원이 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기영의 소설 『고향』에는 두레꾼들이 두레가 순조롭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서울 지주의 마음을 좌상에 앉히는 장면이 나온다. 금고계 임원들의 진세주 회사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사례가 실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진세주는 금고계의 위상도 보여준다. 동계임원 2/3는 진세주를 내지 않았다.(〈표 13〉 참조) 이는 금고계의 위상이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금고계 전유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진세주를 납부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도 인상적이다. 이같이 금고계는 외부인과 접촉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금고계가 외풍에 자유롭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진세주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구성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단체는 致喪禋다. 치상계는 1932년 설립되었는데, 하고동에 거주하던 집[元戶] 71호에서 장정 1명씩 참여하였다.¹⁰⁶⁾ 동계임원은 주민[치상계원과 그 가족] 가운데 인품이 좋은 사람이고, 금고계 전유사는 빌린 돈과 그 이자를 매년 때맞추어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감안하면 금고계는 하민(경제적, 신분적, 연령적 측면)들 중심으로 꾸려졌음을 알 수 있다.

하고동과 달리 여타 마을에서는 지주가 술과 음식을 두레에 내놓기도 했다.¹⁰⁷⁾ 아래에서 보듯이 경상도 예천 박씨가는 호미씻이[草宴] 날에 음식을 내놓았다.

1869년 7월 23일, 草宴 때 魴魚 1전 5푼, 北魚 10마리 3전 5푼, 鼓邊魚 2마리 2전 5푼.

1871년 7월 7일, 草宴 때 鼓邊魚 3마리 3전 4푼, 개고기 3꼬치 3전 6푼.

1911년 7월 3일, 머슴 草宴 개고기 2냥 7전, 술 2동이, 北魚 8마리, 닭 1마리.¹⁰⁸⁾

초연 때 박씨가는 19세기에는 생선 약간과 개고기[黃肉]를 내놓았다. 그런데 1911년에는 개고기, 닭, 북어, 술 등을 찬조했다. 이 같은 찬조는 박씨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박주대는 그날 일기에서 “머슴들 초연이다. 농사는 大本이나 머슴들의 폐단이 해마다 증가한다”¹⁰⁹⁾고 한탄하고 있다. 기쁜 마음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찬조했음을 알 수 있다. 울산에 거주하던 심

106) 『下古里致喪禋』 『下古里致喪禋則』 第3條 本禋의 禋員은 下古리에 居住한 者로 喜. 但 元戶에 限하여 禋員의 義務가 有喜.

107) 姜鋌澤, 앞의 『朝鮮に於ける共同勞動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

108)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1.

109)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2, 辛亥年(1911) 7月 3日 雇輩草宴 農爲大本而傭雇之弊 年增歲加.

원권 또한 전답이 산재한 각 동 農廳¹¹⁰⁾[두레]의 洗粃宴[쟁기씻이]에 자주 참가했는데,¹¹¹⁾ 음식을 푸짐하게 찬조했을 것이다.

3) 윤력전

은 동네 주민[戶]이 품값을 받는 공동농작업에 두레꾼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는 19세기 후반 대저리 실상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1845년 6월 6일, 錢還을 해결하려고 洞中의 大小 집을 가리지 않고 모두 나와 논의 김을 땀다. 우리집 담 55두락 김매기를 끝냈다.

1849년 10월 10일, 洞會를 열어 김매기하고 받은 돈을 각종 용도로 나누었다.

1852년 5월 24일, 洞中에서 3조로 나누어 논 김매기를 했다.

1853년 6월 8일, 洞軍을 시켜 논 6.5두락 김매기를 시켰다. 1두락 당 1전 7푼으로 정하고, (더하여 - 인용자) 술, 담배를 (주기로 - 인용자) 정했다. 또 내일은 2.5두락인데, 둘째 날 김매기는 3전 3푼이다.

1855년 7월 18일, 동회에서 논 김매기 값을 받아갔다.

1856년 6월 14일, 올벼 논 김매기를 시작했다. 동군을 시켰다.

1857년 6월 10일, 동군을 시켜 논 김매기를 했는데, 값은 1두락에 8푼이다. 그들은 (해당 논이 - 인용자) 16두락쯤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15두락으로 결정했다.

1859년 6월 11일, 올벼 논 김매기를 끝냈다. 15두락 품삯 1냥 5전을 동중에 들어 놓았다.¹¹²⁾

110) 『沈遠權日記』 辛未年(1871), 6月 18日 農廳十人除草務; 7月 4日 是日兩洞農廳, 吾家除草畢.

111) 『沈遠權日記』, 乙亥年(1875) 5月 17日 夕陽往來 洗粃宴新安; 己卯年(1879) 6月 7日 朝往來古士洗粃宴; 癸卯年(1903) 閏5月 17日 曉往仙巖 白米一合求之 鷄一首 送尺果後 往內面 更來仙巖洗粃宴; 丙午年(1906) 6月 4日 往于野巖洗粃宴.

위에서 보듯이 대저리 동회에서 공동노동을 설계·감독하고, 그 보수 또한 받아갔다. 그런데 동회, 곧 洞中에서 주도하는 두레농사에 참여하지 않은 집[戶]도 있었다. 그 경우에는 벌금, 곧 闕錢을 내야 했다.¹¹³⁾ 아래 1858년 모산동 사례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월 일

運役錢 : 4냥4전내 希文 8전 …… 文賢 9전, 贊瑞 4전, 聖章 2냥3전.

未到記 : 杏園宅 2전, 平邨宅 1전, 平化宅 1전, 道先 1전, 小者 1전, 擇邨宅 3전, 富亭宅 1전, 傍村宅 1전, 當村宅 2전, 新村宅 1전, 院等宅 1전, 石門宅 1전, 南外宅 1전, 獨談 1전, 平化宅 1전, 會寧宅 1전, 營田宅 2전, 冬栢宅 2전, 合錢2냥4전 都合6냥8전.

7월 초10일 運役記

(運役錢-인용자) : 聖章 24명 2냥4전, 允賢 6명 4전8푼, 希文 6명 4전8푼.

(未到錢-인용자) : 當邨宅 8푼, 富亭宅 8푼, 牆內宅 8푼, 新邨宅 8푼, 南外宅 8푼, 冬栢宅 8푼, 小者 8푼, 獨談 8푼, 平化宅 8푼, 合錢 7전2푼, 都合錢 4냥8푼.¹¹⁴⁾

모산동 동중은 1858년에는 2월과 7월에 운력전을 받았다. 2월 내용으로 보아 7월 運役記 또한 運役錢과 未到錢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중이 2월에 운력군 4명(聖章, 文賢, 希文, 贊瑞)에게 받은 돈은 일손이 부족한 집의 땀값[柴草]을 해주고 받은 貫錢[임금]이고, 7월에 운력군 3명(聖章, 允賢, 希文)에게 받은 돈은 절기로 보아¹¹⁵⁾ 일손이 부족한 집의 제초작업을 해주고 받은 임금이다. 운력군들이 낸 돈은 4명 또는 3명의 임금만이 아니고 두레패 전체의 품삯이다. 7월 기록은 聖章이 낸 돈이 24명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들은 두레패를 이끌던 임원이었던 것이다. 미도전은 동중에서 주관하는 운력에 참가하지 않은 사

112) 『예천 맛질 朴氏家日記』 2.

113) 姜鋌澤, 앞의 『朝鮮に於ける共同勞動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

114) 『洞中年下記』 戊午年(1858).

115) 1858년 7월 20일은 양력 8월 18일이다. 맛질 박씨가 경우 본격적인 김매기는 양력 7월 초순에서 8월 상순까지 약 1달 동안 진행되었다. 박씨가 농사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건태, 2012 『19세기 집약적 농법의 확산과 작물의 다각화: 경상도 예천 맛질 박씨가 가작 사례』 『역사비평』 101 참조.

람들에게 받은 關錢이다.¹¹⁶⁾ 靑전액은 공동작업을 하고 나서 그 액수가 정해진다. 즉 두레꾼 1인이 받은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가 남정을 내지 못한 집의 靑전이 된다.¹¹⁷⁾ 장흥군 용산면 하금동 保恒組合契는 1927년 계원 27명이 운력에 참여하여 받은 돈이 40.5냥(1인당 1.5냥)임을 근거로 운력에 참여하지 않은 계원 12명에게 靑전 18냥(1인당 1.5냥)을 징수했다.¹¹⁸⁾

7월 運役記는 두레의 마을 내 위상을 잘 보여준다. 7월 제초 관련 동중운력 때 45호 가운데 36집[운력전]은 참여하고, 9집[미도전]은 불참했다. 그런데 두레 임원 3명은 모두 이름만 쓴 데 비해 운력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택호를 썼다. 하민이 두레의 중심이고, 적지 않은 상민들이 두레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여타 마을에서도 확인된다. 일제시기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 순흥군 동호리에서는 예전부터 양반들은 두레에 잘 참여하지 않았다.¹¹⁹⁾ 한편 하민들 가운데도 두레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小者と獨談은 1858년 각각 5두락과 4두락을 경작하고 있던 영세농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두레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¹²⁰⁾

운력이 며칠 동안 행해질 경우 계원에 따라 참가 날짜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1인의 靑전액도 다양해진다. 위 모산동 2월 기록을 보면 호[宅]당 미도전 규모는 1~3전으로 다양하다. 아마 두레패가 3일 동안 땀감 채취해서 올린 수익을 개인별로 나누니 1전 정도 되었던 모양이다. 아래 1930년 충청도 음성 사례에서도 두레꾼의 품값 정산을 할 때 참가 날짜를 따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소작지의 경영에 관한 특례 : 드물게는 「두레논」, 「패논들세기」, 또는 「두룩넙가」라고 부르고 한 부락의 농민이 협의한 위에 전부 일시에 출동하여 그 부

116) 김건태, 앞의 『19세기 공동납과 마을자치』.

117) 『保恒組合契案』 『規約』, 運役時 關錢 以其時生財 計算收入. 이 계는 1926년 장흥군 용산면 하금동에서 설립되었다.

118) 『保恒組合契』 丁卯年(1927) 6月 15日, 27員運役錢40兩4分果 三朔利子3兩6錢果 12員運役關錢18兩.

119) 鈴木榮太郎, 앞의 책.

120) 『洞中年下記』.

락인의 경작지를 감을 경작지의 구별 없이 전부 순서대로 작업하고 작업이 끝날 때 그 경작지 면적의 다소의 비율로써 노임을 계산한다.¹²¹⁾

위 자료는 일본어로 작성되었는데, 「두레논」, 「패논들제기」, 「두룩넘가」를 한글로 쓰고 일본어 음을 적어놓았다. 음성에서는 두레꾼 개인의 경작지(자작지 + 소작지)와 참여 날짜를 따져 품값을 정산하였다. 즉 경작지가 적은 사람은 품값을 받고, 경작지가 많은 사람은 품값을 내놓는 방식이다. 이렇듯 음성 두레꾼들의 품값 정산 과정은 매우 정밀했다. 19세기 여타 지역 농민들 또한 금전 授受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예컨대, 장흥·강진지역 각종 계문서의 계산 또한 훈 단위까지 정확하다. 여기서는 동중에서 기획한 두레농사를 동중운력으로 칭하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다. 두레가 해체되어도 동중운력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즉 동중운력 그 자체가 두레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두레꾼은 금전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들의 품값 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할 수 없었다. 앞에서 살펴본 예천 박씨와 모산동 사례에서 그러한 정황을 읽을 수 있다. 동중운력 설계와 금전 관리 주체는 두레패가 아니라 洞中[동회]이었다. 이는 품값 결정 과정에 上民(신분, 경제, 연령 측면)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동회는 모든 洞民이 모이는 회의체가 아니고 유력자 몇 명이 모이는 자리였다. 예천 맛질의 경우 동회가 洞舍¹²²⁾에서 열리기도 했지만 玉延亭, 判上家, 鄉賢祠, 文山堂 등¹²³⁾에서도 개최되었다. 이러한 건물은 많은 사람이 모임 공간도 없고, 하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건물의 기능과 位相으로 볼 때 동회는 유력자들의 모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력자들이 품값을 결정했다면 그 수준은 쉽게 예상이 된다. 일반 품값보다 헐했다. 예컨대, 1두락 제조할 때 지주가 직접 日雇를 고용해서 작업하면 1전이 들지만 두레패를 활용하면 8푼이 되는 식이다.¹²⁴⁾ 두레패의 품값 정산방식 또한 일고와 다르다. 예천

121) 충청북도, 1933 『小作慣行調査書』 1(1930年 調査).

122)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2, 己未年(1859) 12月 8日 金溪伴來 捧堂錢事 會洞舍.

123)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2, 己亥年(1839) 6月 10日 洞會于玉延亭; 乙卯年(1855) 7月 24日 洞會于判上家 議論不定; 庚申年(1860) 6月 1日 洞會於鄉賢祠; 甲申年(1884) 2月初3日 洞會於文山堂.

박씨가 사례에서 보듯이 人당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두락 단위로 정산된다. 즉 都給制인 것이다. 20세기 여타 지역에서도 동중에서 기획한 윤력의 품삯을 정산할 때 면적을 기준으로 삼았다.¹²⁵⁾

금전 授受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농민들은 그들이 품삯이 낮게 책정되는 데도 왜 드러내놓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첫째, 上民들의 기세에 눌렸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두레패의 품삯이 공동재원으로 귀속된다는 명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천 맞질과 모산동에서 보듯이 동중이 동중윤력을 기획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공동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장흥지역 여러 마을에서도 19세기 후반~20세기 초 공동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중에서 가끔 동중윤력을 주관했는데, 이때에는 戶마다 남정 1인이 일하러 나갔고 남정을 내지 못하는 집에서는 결전을 납부했다.¹²⁶⁾ 일제시기 연구서에서도 동중이 주관하는 동중윤력의 품삯이 마을 공동재원에 충당되는 사실을 볼 수 있다.¹²⁷⁾

두레패는 위세와 명분에 밀려 드러내놓고 불만을 토로하지는 못했지만 작업과정에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다. 즉 작업 결과가 거칠었다. 그러한 사실은 일제시기 조사서와 연구에서 확인된다.¹²⁸⁾ 아래에서 보듯이 윤력에 참가했던 충청도 보령지역 촌노들도 당시 상황을 그렇게 회상했다.

시령굴 마을 : 모를 다 심고 농사가 풍년이 들 것 같고, 일거리가 많아 일이 몰리면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두레를 하자고 건의한다. …… 보통은 두벌 때 두레를 하였으며 만물(세벌) 맬 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더러는 초벌 때 하였는데, 초벌 때는 비가 풍족해야 하였다. …… 논 주인은 논매는 비용을 부담하였다. 평상시에 일꾼을 얻어 작업하는 것보다는 약간 싸게, 즉 한 마지기에 20,000원 정도 들면 15,000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였다. …… 마을의 큰 기는 정자나무에 꽂아놓고 작은 기를 앞세우고 풍물패가 뒤따르며 들로 향하여 행진한 후, 농악에 맞추어 논매기를 시작한다. …… 초벌매기와 두벌매기는 모두 호미로 땅을 파고 매는데, 초벌매기는 장정이 하루에 5~6되지기(100~120평) 매고, 두벌은 1마지기

124) 豊田重一, 앞의 『農社農樂に關する』 『朝鮮彙報』.

125) 姜鋌澤, 앞의 『朝鮮に於ける共同勞動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

126) 이용기, 앞의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127) 豊田重一, 앞의 『農社農樂に關する』; 張基昌, 1917 『農社に就て』.

128) 충청북도, 1933 『小作慣行調査書』 1(1930年 調査); 豊田重一, 앞의 『農社農樂に關する』.

정도 맨다. 만물(세벌)은 손으로만 매는데 약 1.5마지기를 맨다. 두레는 보통 두벌 매기를 한다. …… 땃갓(술참)은 막걸리와 약간의 안주를 내는데 마을 기금으로 부인들이 공동으로 준비한다. …… 풍물에 맞추어 일을 하였고 오후가 되면 술에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일이 거칠었다. 밭에 밟히거나 흙덩이에 덮이는 벼가 많이 생겨났는데, 이렇게 넘어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따비 일센다’라고 하였으며 나이 어린 사람들이 하였다. 이런 두레 노동은 3-5일 동안 하였다. …… 두레의 결산은 칠월칠석날 정자나무 밑에 모여서 하였다. 논의 면적대로 거둔 금액에서 비용과 마을 기금을 공제하고 나누었다. 따라서 논의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하였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품삯이 배당되었는데 보통 품삯보다 훨씬 싸게 배당되었다. 원래 두레의 뜻이 마을의 기금을 조성하고 일꾼들이 모여 흥겹게 놀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와 일꾼들 모두가 양보하는 것이다. …… 시령굴 마을 두레는 해방 직후 없어졌다.

해창 마을 : 비가 넉넉하여 모를 심고 나서 풍년이 예견되면 두레를 하였다. …… 날이 가물어 모를 모두 심지 못하면 두레를 하지 않는다. 모를 심고 두레를 하면 두레 기간이 약 1달 정도 되었다. 긴 기간 동안 두레를 했기 때문에 매일 한 것은 아니었고 필요한 날만 하였다. …… 두레 일은 보통 아시매기(초벌)를 하고 두벌 매기는 하지 않았으며 가끔 세벌매기(만물)를 하기도 하였다. 아시매기는 호미로 흙을 파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많은 노동력이 들었다. …… 들에 이르면 두레기는 들 가운데 쉬고 밥먹는 장소에 꽃아두고 농악대의 인도에 따라 논에 들어가 김을 맨다. 힘든 일이라도 풍물을 치면 어렵지 않게 일을 하였다. 아침나절과 저녁나절에 새참을 먹는데 새참은 술과 찌개 등 약간의 안주를 먹는다. …… 두레 일은 상당히 거칠었다. 어떤 극단적인 경우는 호미를 잃어버려 맨손으로 기어다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호미로 흙을 파다가 흙덩이로 덮거나 밭로 밟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 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따비 일센다’라고 하였다. …… 두레의 결산은 칠월칠석날 한다. 문서 담당자가 지주들한테 마지기당 얼마씩 받고 논의 없는 사람한테는 얼마간의 품삯을 주는데 평소보다 아주 적다. 마을의 기금으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 해창 마을의 두레는 6·25동란 무렵에 없어졌다.¹²⁹⁾

위 증언은 1999년에 있었는데, 두 마을 노인들의 말이 비슷하다. 두레는 해마다 조직되지 않고, 제초작업에 앞서 결성되었다. 동중운력 일수는 며칠 되지 않았는데, 시령굴의 경우 3~5일 정도였다. 술에 취한 사람이 많아 일이 거칠었고, 벼가 밟히거나 흙덩이에 묻히기도 하였다. 지주가 부담하는 제초비용은 일꾼을

129) 보령시, 2010 『보령시지』.

고용할 때보다 저렴했는데, 거기에서 공동기금마저 떼어 냈기 때문에 두레꾼들이 받은 품삯은 평소보다 아주 적었다. 이를 두고 시령굴 노인들은 “지주와 일꾼들 모두가 양보하는 것”이라고 회상했다.

지주는 일이 거칠었는데도 계속 두레패에 의지했고, 일꾼들은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동중운력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지주들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나아가 일꾼 구하기 어려운 농번기에 김매기 때를 놓칠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두레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일손이 부족했던 심원권은 여러 두레의 쟁기씻이 행사에 자주 참여했다. 그리고 그는 농사철이 되면 여러 마을 農廳[두레]을 수시로 드나들었다.¹³⁰⁾ 당시 울산 지역에서는 농번기 때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치 어려워 심원권은 농꾼 구하러 나섰다가 허탕 치고 돌아오기 일쑤였다.¹³¹⁾ 그러한 상황에서 쟁기씻이에 자주 참여하고 농계를 수시로 드나든 덕택에 그는 두레꾼의 힘을 빌릴 수 있었다.¹³²⁾ 일제시기 조사서도 두레의 장점으로 농번기에 일손 구하기가 쉬운 점, 단점으로 작업결과가 거친 점을 꼽았다.¹³³⁾

동중뿐만 아니라 각종 두레[계]도 구성원들에게 공동농작업을 강제하고 그 품삯을 공동재원으로 삼았다. 앞에서 살펴본 모산동 상부계 운력전이 바로 그것이다. 상부계는 운력에 참여하지 않은 계원에게는 동중처럼 궤전을 징수했다.¹³⁴⁾ 두레에서 주관하는 운력 또한 구성원에게 강제하는 노동이다. 19세기 예천 맞질

130) 『沈遠權日記』, 乙亥年(1875) 6月 28日, 往來古沙農廳 皆務農之意也; 乙亥年(1878) 7月 17日, 午後往于阿里谷德山農廳 言托後 去院里 除草價會計矣; 壬午年(1882) 5月 27日, 午後往楡谷 而新安農廳相議除草事; 壬午年(1882) 6月 6日, 朝過羅浮谷, 往沙坪農廳. 『沈遠權日記』 농정 관련 기록은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131) 『沈遠權日記』, 壬午年(1882) 4月 26日, 近日何以如是煩行 移秧方節時 雇人難求 又況羅浮谷二十一斗落未及糞土 故折草經營 廣求雇人 虛行十常八九 然多有虛行 故或有實行 由是多煩; 癸未年(1883) 6月 22日 求雇人次 過院里沙坪新安花莊 未得雇人 過明洞也音 而往花津 難求雇人; 甲申年(1884) 5月 24日 朝往南野 六斗地內二斗地移秧耳 十五庚六斗地 兩日未畢移秧事 方今四野 處處爭先 人人移種 雇人極貴; 戊子年(1888) 6月 11日 夕陽往來沙坪 雇人極貴. 『沈遠權日記』 ‘難求雇人’ 기록은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132) 『沈遠權日記』 辛未年(1871), 6月 18日 農廳十人除草務; 7月 4日 是日兩洞農廳 吾家除草畢.

133) 豊田重一, 앞의 『農社農樂に關する』.

134) 『喪聘契傳掌記』 辛酉年(1921) 11월 20일, 各項闕錢 36兩7錢.

박씨가 일기는 契에서 주관하는 운력에 불참하고 대신 궤전을 납부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아래에 소개된 1892년 사례를 보기로 하자.

- 4월 : 10일 始築泐 當日雇, 11일 守鎮 午前出午後闕, 12일 闕, 15일 貰人徐姓人, 16일 又貰人徐, 17일 午前木石, 19일 有鎮, 24일 守鎮午前 午後掇
- 5월 : 6일 徐童, 21일 有鎮 午後雨, 22일 守鎮, 23일 午後守鎮
- 6월 : 7일 有鎮 午前, 8일 有鎮, 12일 午前午後 木石出而不應, 13일 午前雇子 午後 守鎮¹³⁵⁾

泐契¹³⁶⁾에서 실시한 보역은 4월 10일에 시작하여 6월 13일에 끝났다. 박씨는 고공과 貰人[日雇]을 활용해서 보역에 응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궤전을 물었다. 4월 11일 오후, 12일 하루 종일의 보역에 사람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궤전으로 3전을 냈다.¹³⁷⁾

장흥·강진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서도 동중이나 계에서 강제한 의무노동을 운력이라 칭했고¹³⁸⁾, 국가에서도 徭役을 運力¹³⁹⁾이라 했다. 여기서는 동중에서 강제하는 노동을 동중운력, 두레[계]에서 강제하는 노동을 두레운력으로 칭하기로 한다. 두 운력은 모두 강제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흥·강진 지역 고문서나 촌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운력은 동중이나 두레[계]에서 그 구성원에게 강제하는 노동 일반을 의미한다. 19세기 후반 ~ 20세기 전반 장흥군 모산동에서는 家材運役, 麥草運役, 肥料草運役, 船材運役, 水砧運役, 柴草運役, 薪運役, 椽木運役, 鹽田運役, 移秧運役, 除草運役, 折草運役, 租運役, 簣株運役, 堆肥運

135)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2, 壬辰年(1892).

136)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2, 辛巳年(1881) 6월 1일, 泐廳作水牌輪權; 戊子年(1888) 3월 26일, 泐規廢弛不遵 令習可慨

137)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 日用』 1, 壬辰(1892) 4월 16일, 泐闕一日半三錢給.

13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2, 乙未年(1835) 6월 25일, 送億興運力於栗里喪家; 辛未年(1871) 三月小 初四日, 送雇運力於客舍大樑木.

139) 『各司謄錄』 10, 『嘉林報草』 1, 朴龍秀(林川郡守) 戊午(1738) 11월 25일, 今年莊[藏]水之役 爲慮民弊 且爲補賑 代租伐水間 一從民願舉行之意 前已傳令知委爲如乎 更爲思量 則貧殘無依一斗穀難辦之類 當此冬節 赤身饑腸 亦何以伐水負納乎 督迫驅使 亦所不忍乙仍于 同莊[藏]水之役段 以邑內人 運力浮莊[藏]計料爲去乎.

役, 火木運役, 海苔木運役 등¹⁴⁰⁾ 다양한 운력이 행해졌다. 이들 운력은 모두 유상노동으로 동중이나 두레에서 그 품값을 받아갔다.

보령 시령굴 마을과 해창 마을에서는 논 제초 때만 운력을 했다고 했다. 일제 시기 조사서와 각종 연구, 해방 이후 증언류를 살펴보면 이양과 제초 때 모두 운력을 했다는 사례도 있고, 제초 때만 했다는 경우도 있다.¹⁴¹⁾ 그에 비해 이양 때만 운력을 하고 제초 때는 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거의 없다. 이는 운력의 중심이 제초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농작업 특성상 이양 때는 운력하기가 쉽지 않다. 주지하듯이 20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관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았는데, 이런 곳에서는 이양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즉 비가 와야만 이양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세기 후반 예천 박씨가 모내기는 소만절(5월 21일 전후)에서 대서절(7월 23일 전후)까지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¹⁴²⁾ 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양으로 운력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운력의 중심은 제초작업에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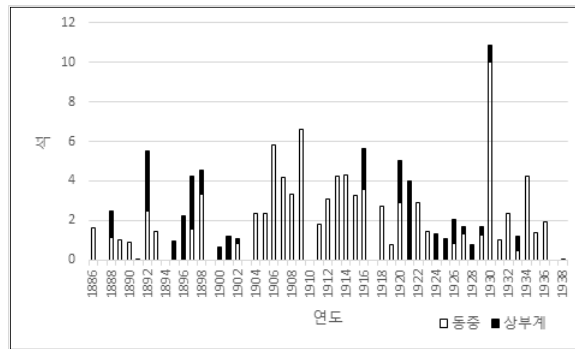
일제시기에도 동중과 두레의 농사관련 운력(이하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운력은 모두 농사일이다) 날짜는 일 년에 수일밖에 되지 않았다.¹⁴³⁾ 앞에서 시령굴 마을도 3~5일 정도였다고 한다. 모산동 운력[동중+상부계] 현황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 15〉 참조) 운력이 시행되지 않은 연도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사실은 앞의 보령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통상 농민들은 운력을 조직하는 것을 두고 ‘두레 난다’고 했는데, 운력은 나지 않은 해가 난 해보다 더 많다. 동중과 두레의 운력 난 날을 모두 합해도 며칠 되지 않았다. 그러한 사실은 운력전에서 확인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1858년 모산동은 운력전으로 1인당 8푼, 도합 4냥8푼을 징수했다. 예천 대저리 박씨가 사례로 보건대, 8푼은 하루~이틀 일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 박씨가 이양과 김매기 하루 품값은, 두 차례의 술과 담배만 지급하는 경우 2전, 더하여 한끼 음식을 제공하면

140) 『洞中年下記』.

141) 조선총독부, 1923 『朝鮮民政資料』 「農契」; 姜鋌澤, 앞의 『朝鮮に於ける共同勞動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 국립민속박물관, 1994 『한국의 두레』.

142) 김건태, 앞의 『19세기 집약적 농법의 확산과 작물의 다각화』.

143) 姜鋌澤, 앞의 『朝鮮に於ける共同勞動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



〈그림 15〉 1876~1938년 모산동 동중과 상부계의 농사 운력전 수입 현황

1.5전, 세끼 음식을 주면 1전, 食前부터 일하면 7푼이다. 한끼는 점심이고, 세끼는 점심과 두 차례 새참, 식전은 세끼에 아침을 더한 것이다.¹⁴⁴⁾ 지역이 다르고, 日雇와 두레패의 품삯 차이를 감안하면 1858년 모산동의 8푼은 두레패 개인의 이틀 품삯 정도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1858년 모산동 동중에서 징수한 4냥 8푼은 1858년 상금동 백씨문중의 작전례를 적용하면 조 1석을 조금 넘는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모산동 동중과 두레의 운력은 특정 몇 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연간 3~5일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보았듯이 하고동 금고계에서도 공동농작업을 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수입이 극히 적었다. 이는 금고계가 운력을 거의 강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하고동 동중도 동민들에게 운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즉 현존하는 1934~1969년 동중 금전출납부에서 운력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하고동 금고계 구성원들은 공동농작업을 하고 얻은 수입을 각자 나누어 가졌음을 의미한다. 하고동 동중과 금고계가 구성원들에게 운력을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재정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연평균 수입이 금고계 6.1석, 상부계 3.1석이다. 그리고 하고동은 동중도 수입이 많았다. 1934~1948년 연평균 수입은 동중운력을 거의 하지 않은 하고동이 49.2석,¹⁴⁵⁾ 동중운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모산동이 조 28.5석이다.¹⁴⁶⁾ 하고동은 운력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정

144) 이우연, 2001 『농업임금의 추이』 『맛질의 농민들』(안병직 · 이영훈 편저) 일조각.

145) 『金錢出納簿』.

〈표 14〉 1875년 언양현 천소동 농가의 경작 유형과 규모

(단위: 호)

경작지 두락	가작	가작 + 병작	병작	무	합계	(%)
40 이상	3				3	(2.6)
30~40	4				4	(3.4)
20~30	5	2	1		8	(6.8)
15~20	6		2		8	(6.8)
10~15	16	4	9		29	(24.8)
5~10	5	3	15		23	(19.7)
5 미만	4		5		9	(7.7)
0				33	33	(28.2)
합계	43	9	32	33	117	(100)
(%)	(36.8)	(7.7)	(27.3)	(28.2)	(100)	

〈표 15〉 19세기 후반 모산동 농가의 경작답 규모

경작지 두락	1858년		1869년	
	호	두락	호	두락
20~30	1 (2.9)	23.5	2 (5.1)	50
15~20	4 (11.4)	73.5	4 (10.3)	72.5
10~15	3 (8.6)	34.5	5 (12.8)	61.2
5~10	11 (31.4)	77	9 (23.1)	63.5
5 미만	16 (45.7)	37	16 (41.0)	45.5
0			3 (7.7)	0
합계	35 (100)	245.5	39 (100)	292.7

* 비고: ()안 숫자는 %임.

이 너넉했던 것이다. 하고동 동중 수입의 근간은 동답(28.3두락, 전 21두락) 지대인데, 1931~1947년까지 연평균 조 17.1석을¹⁴⁷⁾ 수취했다. 동답을 언제 조성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1948년에 대부분 방매했다. 한편 하고동은 동답을 직영한

146) 『洞中年下記』.

147) 『里有土地連名簿』.

것이 아니라 모두 소작으로 대여했다. 이는 하고동 동중이 기획한 동중운력이 얼마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9세기 후반 농촌 실상을 살펴보면 동중과 두레가 구성원들에게 장기간의 운력을 강요할 수 없었던 실정을 이해할 수 있다.(〈표 14〉, 〈표 15〉 참조¹⁴⁸⁾) 농가에 따라 경작규모가 크게 차이 날 뿐 아니라 영세농이나 경작지가 없는 농가가 많다. 1875년 언양 천소동에서는 경작지가 5두락 미만인 농가가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모산동에서는 그러한 농가가 전체의 40%를 넘었다. 이들이 여름 농사철 내내 운력에 동원되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해 이들은 농번기 때 열심히 품팔이를 해야만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다. 1923년에 발간된 아래 『조선민정자료』는 그러한 사실을 전한다.

A - (농계는 - 인용자) 같은 전야에 농사짓는 농부가 모내기·제초 등 공동작업을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계원이 만드는 전지 전체를 통틀어 미리 날짜 순서를 정하고 계원(보통 2,30명)이 모두 나와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능률을 높여서 이익과 편리함이 많고, 특히 농번기에 있어서 수리와 그 외 형편상 수십 인의 백성이 힘을 모아 한 번에 행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촌내의 농업 노동력이 종종 소수 유력자를 위해 독점되어 농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농계는 그것을 잘 조화시키는 것으로, 곧 농은 천하의 대본이라고 한다면 농의 앞에는 어떤 사람이든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신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 ……

B - 농계는 위와 같이 동일한 곳에 농작을 하는 자가 노동력을 함께 내서 공동작업을 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평상시에 농사를 짓지 않는 자 곧 소작지를 지니지 않고 간신히 농가에 노동력을 팔아 생활하는 자들이 그것을 조직하여 농번기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농가에 고용되어 모내기나 김매기 청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곧 평소에는 각 사람마다 따로 日雇 노동을 하지만, 농번기에 일손이 모인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를 만드는 편이 서로 편리한 것이다.¹⁴⁹⁾

위에서 보듯이 『조선민정자료』는 두레 노동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

148) 〈표 14〉는 김건태, 2020 「조선 후기 호적대장 호구차정 원리」 『대동문화연구』 110에서, 〈표 15〉는 김건태, 앞의 「19세기 공동납과 마을자치」에서 인용.

149) 조선총독부, 1923 『朝鮮民政資料』 「農契」.

는, 곧 A는 동중 혹은 두레 운력이다. 다른 하나, 곧 B는 경작지가 없는 농민이 두레를 조직하여 임노동을 하는 것이다. 이같이 농민들이 임노동을 위한 두레를 따로 조직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기존 두레패들이 운력을 하지 않는 날 품삯을 받고 지주들의 농사일을 해주었을 것이다. 두레에서 B의 공동농작업은, 참여한 사람이 받은 품삯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참가 여부가 결정되었다.¹⁵⁰⁾ 이같이 운력은 강제성에 기반을 둔다면 B의 노동은 자율성에 기초한다. 이 글에서는 B를 동두레로 칭하기로 한다. 1933년에 발간된 충청북도 『小作慣行調査書』는 동두레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청부 경작 (명칭 - 인용자) : 雇只, 雇地, 동두레, 매기, 매기논, 雇只논, 雇地논, 雇只農事.

(청부 경작 - 인용자) : 보통 소작인 중 공민으로 노동력에 여유가 있는 자 또는 일용노동자가 4·5인 내지 15·6인 공동으로 1단보에 3원에서 3원 15전 정도의 청부금을 받아 경작하는 계약을 보통으로 한다.

(동두레의 - 인용자) 폐단 : 경작의 방법이 조방적이면서 수확이 적고 또한 토지를 황폐하게 한다.¹⁵¹⁾

위 조사서는 일본어로 된 책인데, “동두레, 매기, 매기논, 雇只논, 雇地논”은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동두레¹⁵²⁾와 고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동두레는 운력처럼 도급제로 운영되었고 그 작업 결과 또한 거칠었다. 동두레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심원권 일기에서 찾아진다. 심원권은 김매기를 위해 울산 城內 농청과 두락당 0.5냥, 0.7냥.¹⁵³⁾

150) 姜鋌澤, 앞의 『朝鮮に於ける共同勞動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

151) 충청북도, 1933 『小作慣行調査書』 1(1930年 調査).

152) 동두레를 운력의 의미로 사용한 강정택도 그 근거로 동 『小作慣行調査書』를 들고 있다. 그런데 동 조사서는 운력을 논두레, 고지를 동두레라고 했다. 무슨 이유로 강정택이 그 뜻을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다.

153) 『沈遠權日記』, 丁亥年(1887) 6月 12日, 朝城內農夫五十餘人來 羅浮谷除草十七斗地 價八兩五錢; 癸巳年(1893) 6月 7日, 往城內 農人五十八人同來院里三處 十三斗落 九兩二錢除草.

또 다른 두레패와 마지기당 0.61냥을 주기로 계약했다.¹⁵⁴⁾ 그리고 심원권은 동두레를 활용해 김매기 할 때 여러 마을 동두레를 한 곳에 투입하기도 했다.¹⁵⁵⁾ 이같은 광경은 여타 지방에서도 흔히 목격되었다. 20세기 초 전라남도 나주와 경상남도 김해·영산에서도 농번기에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작업을 하였다.¹⁵⁶⁾

이같이 동두레를 하는 농청은 조건[품삯]만 맞아떨어지면 먼 곳까지 가기도 하고 다른 마을 농청과 협력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편 앞에서 보았듯이 모산동 상부계와 같이 하고동 금고계, 자미동 농계와 근농계 등도 공동농작업을 하였으나 그들의 전장기에는 그와 관련된 수입이 거의 잡히지 않았다. 이는 동두레에 참가한 사람들이 품삯 전액을 서로 나누어 가졌음을 의미한다.

품삯이 도급제로 정산된다는 점은 두레농사, 특히 동중운력과 두레운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즉 두레농사를 계약하고 품삯을 정산할 때 지주는 통상 두레의 임원만 만나고, 직접 농작업을 하는 일반 두레꾼은 보지 않았다. 예컨대, 심원권은 여러 지역 農廳[두레]에 들러 농사일과 관련된 계약을 했다.¹⁵⁷⁾ 품삯 정산은 대체로 洞首와¹⁵⁸⁾ 했는데, 계약 때 일부를 주기도 하고,¹⁵⁹⁾ 농사일이 끝난 뒤 몇 차례 나누기도 했다.¹⁶⁰⁾ 예컨대 맛질 박씨가도 두레꾼의 품삯을 동중에 주었다.¹⁶¹⁾ 이같이 운력에서 농작업의 주체인 두레꾼은 계

154) 『沈遠權日記』, 丁酉年(1897) 7月 11日, 往沙坪 農夫十五人同來 除草二十斗地 價十二兩三錢.

155) 『沈遠權日記』, 辛未年(1871) 7月 4日, 是日 兩洞農廳 吾家除草畢.

156) 三成文一郎 외(한상찬 외 옮김), 2013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Ⅲ(1904~1905년), 민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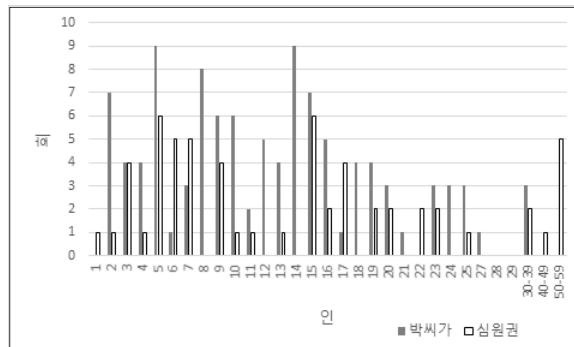
157) 『沈遠權日記』, 乙亥年(1875) 6月 28日 午往來農廳 而往來古沙農廳 皆務農之意也; 戊寅年(1878) 7월 17일 午後往于阿里谷德山農廳 言托後 去院里 除草價會計矣; 壬午年(1882) 5月 27日 午後往楡谷 而新安農廳相議除草事.

158) 『沈遠權日記』, 甲申年(1884) 2月 28日 往古士 而逢洞首 會計後還; 丁亥年(1887) 7月 20日 曉往來古士 文一兩四錢給洞首耳.

159) 『沈遠權日記』, 癸巳年(1893) 4月 4日 往龍峯洞首 文一兩六錢二分出給 往深浦朴洞首 許文二兩留置 過龍淵細竹城內而還家; 丙申年(1896) 5月 17日 求雇人次往于城內 文二兩任朴洞首還家 往看西野而來.

160) 『沈遠權日記』 丙子年(1876), 6月 12日 朝城內農夫五十餘人來 羅浮谷除草十七斗地 價八兩五錢; 7月 9日 曉往目島市 來時城內除草貫八兩五錢內 四兩出給 在四兩五錢.

161)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2, 己未年(1859) 6月 11日, 耘早畚畢 以十五斗落價一兩五錢 入于洞中



〈그림 16〉 19세기 후반 박씨가와 심원권의 하루 농사일에 투입된 작업반 규모

약과 정산과정에서 소외되었다. 그들은 그저 일하러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만 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지주들은 두레(동중운력, 두레운력, 동두레)에 어느 정도 의지했을까? 즉 10명이 넘는 대규모 두레패와 日雇 중 어느 쪽이 지주가의 농사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까? 예천 박씨가(1838~1881년)와 심원권(1879~1899년) 일기에서 실상을 대략 살펴볼 수 있다.(〈그림 16〉 참조) 일기는 농사와 관련된 일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분위기는 짐작할 수 있다. 두 집 모두 두레농사에 의지한 날이 적지 않다. 동중운력, 두레운력이 며칠밖에 행해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두레농사의 중심이 동두레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3년 강화도 교동에서는 11명(남5명, 여6명)으로 구성된 어떤 두레패는 그해 7월 4일까지 18일째 품팔이를 하고 있었다.¹⁶²⁾ 농사일정을 감안하면 그 후에 품팔이를 더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두레농사를 해주고 생계를 꾸리는 대규모 두레패도 있었다. 심원권 농사일에 자주 동원된 울산 城內 두레패는 50명이 넘었다.¹⁶³⁾

162) 高橋昇(농촌진흥청 읍김), 2008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 이 책은 ツレ를 '쓰레'로 번역하고 있는데, 일제시기에는 두레를 '쓰레'로 읽었다.

163) 『沈遠權日記』, 丁丑年(1877) 6月 12日, 朝來城內農夫五十一人 而羅浮谷上十六斗落除草後 來壯谷五斗落除草後 去泉谷五斗地除草; 丁丑年(1877) 6月 27日, 朝城內農夫五十五人來 院里五斗落除草後 書堂前五斗落除草矣; 丁亥年(1887) 6月 12日, 朝城內農夫五十餘人來 羅浮谷除草十七斗地 價八兩五錢; 癸巳年(1893) 6月 7日, 往城內 農人五十八人同

사실 현장에서는 동중운력, 두레운력, 동두레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1875년 모산동 동중에서 1인당 8푼의 운력전을 받았다. 그런데 동중운력의 품삯은 개인별 정산이 아니라 도급제로 계산되었다. 도급제로 운영되면 1인당 품삯이 푼 단위로 깔끔하게 정산되기 어렵다. 즉 동중운력으로 받은 품삯 일부를 두레꾼들이 나누어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910년대 홍성지방에서는 두레패가 받은 품삯 대부분을 두레꾼들이 나누어 가지고, 일부만 공동재원으로 삼기도 했다.¹⁶⁴⁾ 앞에서 보았듯이 보령지방 두레 또한 동중운력으로 받은 품삯에서 경비와 마을 기금을 제하고 남은 돈을 두레꾼에게 배분했다.

4) 기타 수입

(1) 이자

조선후기 모든 계는 식리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창계목적 중 하나가 식리활동을 통한 재산증식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4종의 계 또한 적극적으로 식리활동을 펼쳤다. 여기서 눈여겨 볼 계는 하금동 금고계다. 장흥·강진의 각종 계는 연간 적계는 몇 명, 많게는 10~20명의 전유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음 해 이자와 원금을 합산해서 받아들였다. 이 과정을 수십 년 반복하다 보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원금마저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 경우 대체로 납부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었다. 탕감이 누적될수록 재정적 손실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계원 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겼다. 즉 이자 납부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몇몇 계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다. 하금동 금고계는 1936년부터 전유사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요했다. 1936년 15명의 전유사 가운데 13명이 연대보증인을 세웠다. 대출액수가 많을 때는 저당을 잡기도 했다. 1937년 임계준은 21.72원을 빌리면서 임야 397평을 저당잡혔다. 그리고 “기한을 어기면 저당권을 의무처리 하기로 함”이라는 각서를 쓰고 날인

來院里三處 十三斗落 九兩二錢除草.

164) 豊田重一, 앞의 『農社農樂に關する』.

했다.¹⁶⁵⁾ 금고계만 契錢을 빌려줄 때 보증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장흥군 용산면 관지동 동계는 1927년 12월 14일 강신일에 아래와 같은 洞中約條을 마련하였다.

一. 右條約은 自今年하야 毋論某誰하고 洞中金錢(書契 洞契 農契) 借用者난 契의 講信日을 當하야 本利金 竝合하야 沒數히 收入할 事.

一. 洞錢借用者 講信日에 收捧되지 못한 時난 田土文記 又난 保證人을 提出하야 連帶로 借用할 事.

一. 此條約을 履行키 爲하야 借用人 一切捺印함.¹⁶⁶⁾

관지 동중은 동전[書契 洞契 農契] 차용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문서를 저당 잡히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하금동 1926년 보항조합제도 계원이 아닌 사람이 돈을 빌리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규정했다.¹⁶⁷⁾ 이같이 1920년대 후반부터 장흥·강진지역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주민들이 金錢授受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 답장전

연초 마당밧기는 축제나 마찬가지로였는데, 장흥·강진지역 계문서에 踏場, 踏庭으로 적혀있다. 두레패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팽과리, 징, 북, 장고 등을 치면서 걸판지게 놀아주면 주인은 음식, 술, 약간의 돈으로 그들의 노고에 보답했다. 마당밧기는 매년 했을 것 같은데, 하고동 금고계에서 그 수입이 확인되는 해는 8개년(1890, 1891, 1897, 1899, 1905, 1919, 1923, 1950)뿐이다. 하고동 동중의 금전출납부에도 답장전 관련 기록이 없다. 무슨 이유로 몇 년 치 답장전만 하고동 금고계 수입으로 잡혔을까?

165) 『農軍進貢捧上冊』 丁丑年(1937) 11월 20日, 林啓俊貳拾壹圓七拾貳錢(捺印) 康津郡兵營面翰學里五七九番地-五 山三百九十七坪 抵當(捺印) 若違期 同時에난 抵當權을 義務處理 ㅎ기로 ㅎ.

166) 觀池洞 『洞契傳掌記』.

167) 『保恒組合契案』 『規約』, 組合員外人 若有借用人 以組合員立連帶保證.

〈표 16〉 1893년 자미동 서계 답장전 수입과 분급 현황

(단위: 냥)

번호	수입		지출	
	성격	액수	성격	액수
1	米作錢條	77.8	小洞金鼓 日數公出給	14
2	踏場時 所捧錢	30.8	襖員下價給	78
3	杏園	1	踏場下記除	10.29
4	有治	1.5	遺失	1
5	未捧錢	34.9	錚鼓新鍊公價出給	40
6	小洞錚 新鍊補給條	5	기타 합	6.3
7	합계	151	합계	149.59

1893년 답장전을 기금으로 삼아 창계된 자미동 書契 전장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표 16〉 참조) 눈여겨볼 내용은 지출 1번 ‘小洞金鼓 日數公出給’ 14 냥이다. 이는 답장 참여자에게 나누어준 돈이다. 서계는 답장 수입과 그 지출 내역을 기재하기 전에 “子美 금고답장전을 모두 정리한다. 상쇠[上金]이하 金鼓 [악기]를 잡은 사람은 일수를 따져 공평하게 쌀로 지급하고 나머지 쌀과 벼를 작전했다”¹⁶⁸⁾ 라고 밝혀두었다. 여기서 하고동 금고계에서 답장전을 거둔 해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는, 통상 답장수입을 참여자들이 고르게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한 해에만 동중이나 계에서 답장전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럴 때는 집집마다 내놓을 답장전 액수를 미리 책정했다. 수입조의 未捧錢(5번 항목)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한편 지출 항목 합계는 미봉전까지 합산된 것이다. 실제로 서계는 그해 1월 8일 78냥 2푼을 식리 차 5명에게 분배했다.¹⁶⁹⁾ 답장이 끝난 며칠 후 미봉전을 징수했음을 알 수 있다. 미리 약속한 기부금을 답장 당일에 회사하지 않을 경우 후일에 추징하는 사례는 하고동 금고계에서도 확인된다. 금고계는 1897년 6월 15일 ‘金鼓踏場時 未推錢’ 명목으로 5명에게 2냥 5전을 받아냈다.¹⁷⁰⁾

168) 『書契案』, 子美 金鼓踏場錢 都打印 上金以下執金鼓人 日數公以米擇給 而餘米租作錢條.

169) 『書契案』 癸巳年(1893) 正月 8日, 金鼓踏場致賀錢 78兩2分 殖利次 各員下價負印.

자미동은 무슨 이유로 답장전을 각호에 배당했을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서계 기금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別還錢 납부였다. 실상을 살펴보자. 서계는 1893년 12월 10일, 1월에 빌려준 원금과 그 이자 109냥 2전 2푼을 받았다. 그 중 87냥 2전은 別還錢 납부에 쓰고, 남은 돈 22냥 2푼은 식리차 3인에게 채부했다.¹⁷¹⁾ 그다음부터 이 돈과 기타 수입을 더한 돈으로 계를 운영했다. 자미동과 같은 사례는 전라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에서도 찾아진다. 아래 류씨가 일기가 1898년 1월 상황을 생생하게 전한다.

2일, 白蓮洞 朴太英에게서 팽과리 1개를 3냥 5전, 나팔 1개를 6냥 5전에 샀다.

5일, 서당에 충당하려고 金鼓[농악대-인용자]를 창설하였다. 본동에서 가까운 동네까지 각 집에서 돈과 쌀을 거두었는데, 제법 많았다.

8일, 농악대를 따라 竹川, 月谷, 丹山까지 갔다가 밤에 돌아왔다.

10일, 농악대와 더불어 모여 앉아 개, 돼지를 삶고 술을 곁들여 종일 즐기며 배부르게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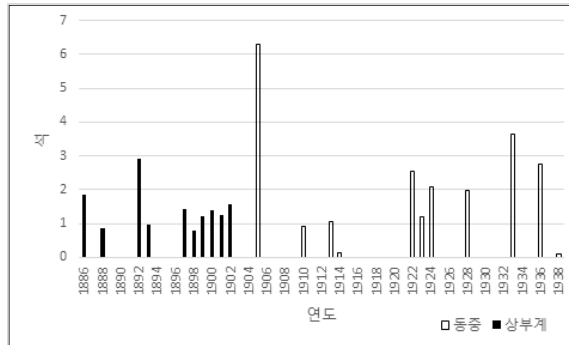
11일, 농악대에 참가한 사람에게 각 2전씩 지불하고 저녁 무렵에 파했다.¹⁷²⁾

오미동 농악대도 자미동처럼 서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미동은 류씨가를 비롯한 유지들의 찬조를 받아 1898년 1월 농악대를 창설하고 바로 이어 며칠 동안 오미동과 이웃 마을을 다니면서 마당밧기를 해주고 기부금을 받았다. 그리고 파할 때는 농악대에 참가한 사람 각각에게 2전을 나누어 주었다. 기부금 대부분은 남겨두었다가 서당과 관련된 일에 사용하였음은 불문가지다.

170) 『農軍進賞捧上冊』 丁酉年(1897) 6月 15日.

171) 『書契案』 癸巳(1893) 12月 10日, 已上坐塵78兩2分 并利合錢 109兩2錢內 87兩2錢別還錢 應納是遣 在錢20兩2分 殖利次各員下 債負印.

1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求禮文化柳氏 生活日記』 『紀語』 己亥年(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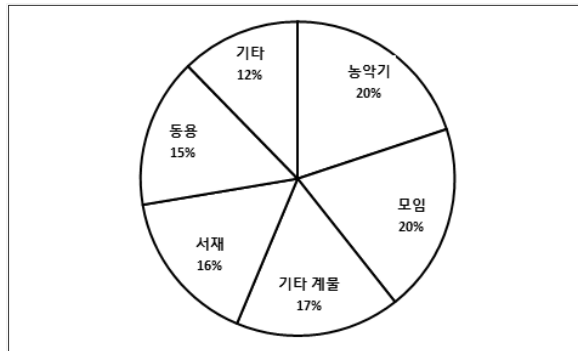
〈그림 17〉 1876~1947년 모산동 동중과 상부계의 답장전 수입 현황

동중이나 계에서 답장전을 받아 간 해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산동 사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그림 17〉 참조) 동중과 상부계에서 답장전을 징수한 해가 얼마 되지 않는다. 1902년까지는 상부계에서, 그 이후에는 동중에서 답장전을 징수했다. 이는 치밀한 계획하에 집집마다 답장전을 배정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보통 때는 자미동에서 보듯이 농악대에 참가한 사람들끼리 답장전 전액을 공평하게 분배해 가졌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5. 지출 측면에서 본 두레의 성격

1) 약기 구입

앞에서 보았듯이 4개 두레의 수입은 매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는데, 약간의 흑자를 남길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즉 큰 지출이 예상되는 해는 수입을 늘리고, 쓸 곳이 많지 않은 해는 수입을 줄였던 것이다. 하고동 금고계는 농악기 구입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그림 18〉 참조) 그다음으로 음력 6월 15일경 두레농사 준비모임 성격을 갖는 강신과 연말 강신 때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강진군 병영면 서삼인동에서는 아래에서 보듯이 유두날 동제를 지낸 다음 유흥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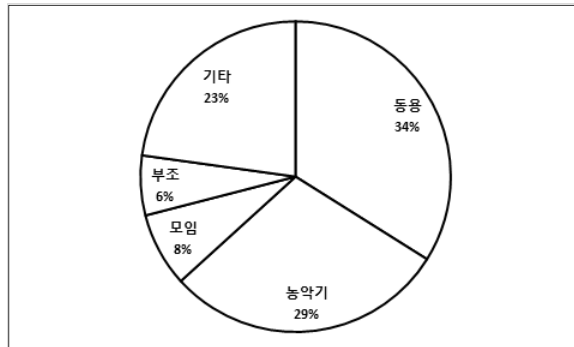
〈그림 18〉 1844~1970년 하고등 금고계 지출 현황

유두제 :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것으로 매년 음력 6월15일이면 마을 앞 사장나무에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제사를 모신다. 제의 경비는 각 가정에서 조금씩 추렴하며 제관은 이장과 동수장이 된다. 제가 끝나면 마을주민들의 흥겨운 놀이의 장이 된다.¹⁷³⁾

놀이의 장이 펼쳐지면 진세주와 각종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농악을 울려가며 흥겹게 노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한편 書齋와 洞 관련[동용] 지출도 적지 않았다. 서재도 洞과 관련 있는 조직임을 감안하면 洞中을 빼놓고는 금고계를 생각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자미동과 오미동도 書契[書堂]와 金鼓를 연관시켰다. 이렇듯 19세기 후반 전라도 남부 지방에서는 서당과 금고를 관련짓는 문화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모산동 상부계의 경우 동용으로 지출한 돈이 가장 많고, 농악기 구입에 쓴 돈이 두 번째로 많다.(〈그림 19〉 참조) 이와 유사한 현상은 앞의 하고등 금고계에서 나타났다. 이는 두 계의 성격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한편 상부계 지출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부조다. 1921년부터 계원 본인, 처, 모 喪 때 부조를 했다. 계 이름[喪賻]에 부합하는 지출이 1921년에 처음 발생했다는 사실에서 상부계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산동 사람들은 상부계를 금고계로 생각했다. 창계 때는 계원들의 상 때 부조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173) 강진군, 1991 『康津郡 마을 史喪: 兵營面篇』.



〈그림 19〉 1886~1938년 모산동 상부계 지출 현황

아마도 계원들의 상 때 노동력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계원이 되면 부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매력이다. 즉 상부계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러했던 것 같다. 1920년부터 상부계는 追入錢¹⁷⁴⁾ 곧 입계비를 받았던 데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상부계 지출에서 눈여겨볼 내용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계전 탕감 부분이다. 상부계는 식리차 빌려주었던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7명의 원금과 이자 전액 또는 일부를 탕감 처리했다. 탕감액수가 자그마치 17.7석으로 전체 지출 153석의 11.6%에 달한다. 이렇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앞서 보았듯이 1920년대부터 장흥·강진지역 동종과 각종 계에서는 대출 때 보증인을 세우거나 전당을 잡히도록 했던 것이다.

자미동 농계도 모산동 상부계처럼 동종과 관련된 지출을 많이 했다. 지출 내용을 보면 洞用이 36.9%로 가장 많고, 대출금 탕감도 17%나 차지한다. 한편 자리미 근농계는 지출 측면에서 위 3계와 크게 다르다. 동종과 관련된 지출이 전혀 없다. 지출 내역을 보면 農事와 관련된 것이 44.1%, 계답 구입비가 36.6%로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고계와 상부계는 두레와 농악이 밀접한 관계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다고 모든 두레가 농악기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농악이 두레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1910년 충청도 홍성지방 두레 197개 가운데

174) 1920년부터 1937년까지 11명이 追入錢을 납부했다.

데 33개는 농악기를 갖추지 않았다.¹⁷⁵⁾ 그리고 1943년 충청북도 제천군 九龍里를 비롯한 인근 마을 두레에도 농악대가 없었다.¹⁷⁶⁾ 홍성지역 대부분 두레에서 연주하던 농악은 언제쯤 조선농촌에서 보편화되었을까? 아래 1916년 매일신보에 실린 『농기경쟁』이라는 글은 의문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 농악 발생의 최초는 전라도요 발생한 연대는 대략 백년간이 되나니 …… 충남으로 말할진데, 어떠한 촌락이던지 농악이 있고, 농군을 감독하는 임원과 악기를 보관하는 임원이 있어 옛날 부상과 같이 좌상이니 반수이니 하는 명목으로 있고 또한 임원의 명목이 업더라도 그 동네에 거주하면서 상당한 자산과 세력이 있으면 금전과 곡식을 기부하여 비용을 보전하나니 대개 농가에서 대규모로 논을 매려면 수십명 이상의 일군을 데리고 농악을 사용하는데, 이같은 때는 큰 기에 문자를 써서 세우고 식전에 일군을 모으려면 북과 징을 울리어 사람을 모은 후에 기를 앞에 세우고 풍악을 치며 나아가서 기를 논둑에 세우고 논으로 들어가서 일군들은 논을 매어나가고 악공인은 풍악을 앞에 울리며 가나니 그 옆천폭양에 괴로움을 잇는 것은 즉 풍악소리를 듣는 것이다.¹⁷⁷⁾

농악이 19세기 초에 최초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영조대에도 있었다.¹⁷⁸⁾ 윗글의 ‘최초’는 보편화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위의 글 필자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글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농악기의 주재료인 구리[銅]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

구리는 18세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은 금속이다. 그래서 15세기에는 유기그릇이 매우 비쌌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천하의 한명회도 쉽게 가질 수 없었던 물품이었다.¹⁷⁹⁾ 17세기 효종 대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구리가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¹⁸⁰⁾ 조선에서 구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상평통보 덕택이다. 숙종 대부터 정부는 일본에서 대량의 구리를 수입하여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동전 발행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정조 22년이 되면 “시골

175) 豊田重一, 앞의 『農社農樂に關する』.

176) 鈴木榮太郎, 앞의 책.

177) 『매일신보』 『농기경쟁』 1, 1916년 7월 30일.

178) 신용하, 앞의 『갑오농민전쟁과 두레와 집강소와 폐정개혁』.

179) 『성종실록』 137권, 13년 1월 9일.

180) 『효종실록』 12권, 5년 6월 20일.

구석의 常賤들도 모두 鑰器를 쓰고 있다”¹⁸¹⁾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구리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1810년대까지도 동전발행을 위한 구리확보가 여의치 않아 동 가격이 매우 비쌌다. 구리값은 182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일본산 동 수입이 증가하고 함경도 갑산동광 채굴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¹⁸²⁾

1820년대부터 구리값이 크게 내렸다 하더라도 농악기를 장만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54년 하고동 금고계 악기 구입비로 12.36냥을 지출했는데, 이 돈으로 벼 5섬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1893년 모산동 상부계는 39.75냥을 들여 악기를 구입했는데, 이 돈으로 벼 5.5섬을 살 수 있었다. 1893년 자미동 書契는 40냥을 들여 악기를 새로 장만했는데, 이 돈으로 벼 5.5섬을 살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1810년대 까지는 악기를 장만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1820년대 이후가 되어야 농촌에서 농악대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2) 동중 지출 보조

지금까지 보았듯이 동중이 금고계, 상부계, 농계 등을 지휘·감독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동중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창계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력자[上民]로 대표되는 동중이 계를 통해 下民(신분적, 경제적, 연령적 측면)을 지배하려고 창계했던 것이다. 아래 금고계 약조는 동중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一 以少凌長, 一 酗酒作亂, 一 舉里呼唱, 一 成黨鬪鬪, 一 惰慢無禮.

계원 중 규약을 어기는 폐단이 있으면 동중에서 벌을 논하고 관에 보고하여 징계할 것.

輕罰 錢5錢, 重罰 錢1兩, 極罰 錢1兩5錢, 損徒 錢3兩.

完議 座上 執綱 公員¹⁸³⁾

181) 『정조실록』 48권, 22년 3월 28일.

182) 이현창, 1999 『1678-1865년간 화폐량과 화폐가치의 추이』 『경제사학』 27.

약조 앞부분이 훼손되어 전모를 살필 수 없다. 남아있는 약조에서 공동 노동과 생산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성취하려는 의도를 읽기 어렵다. 그에 비해 창계 목적이 유교적 질서에 기반한 하민 통제에 있었음을 헤아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벌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데서 契中, 곧 洞中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 규정은 20세기 전반까지는 대체로 잘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진세주 중 일부는 벌금으로 낸 것이다. 한편 하고동 동중은 1941년 동민 5명으로부터 ‘洞法違反罰金’ 각 5엔씩 징수하였는데,¹⁸⁴⁾ 이는 금고계 약조와 별도로 洞憲을 따로 제정해 두었음을 의미한다. 동중에서 동민을 강하게 통제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장흥·강진에서는 금고계 약조와 비슷한 내용의 洞法과 契規가 활발하게 제정되었다. 예컨대, 장흥군 남상면 어서동에서는 1838년 23개 향의 條約을 제정했다. ‘明內外 正上下’로 대변되는 유교적 질서 확립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는 자, 남녀 간에 분별을 지키지 않는 자, 長幼 간에 서열을 지키지 않는 자는 損徒의 벌에 처할 것.
2.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자는 笞罰할 것.
3. 대소인원은 하나같이 內外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上下의 분수를 바르게 할 것.
4. 양반가의 부인이 물을 길어 올 때나 출입할 때 비켜서지 않는 자는 班常을 불문하고 論罰할 것.
5. 常漢男女가 上下의 분수를 범하여 인어를 불순히 하거나 몸가짐을 절도 있게 하지 않는 자는 벌로 笞 15대를 가할 것.
6. 同姓家나 異姓家 혹은 常漢家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체면을 살피지 않고 無常을

183) 『農軍進貫捧上册』“一 以少凌長 一 醜酒作亂 一 舉里呼唱 一 成黨鬪鬪 一 惰慢無禮 此亦中 如或有犯科之弊 則自洞中論罰 報官懲後是齊 輕罰 錢五錢 重罰 錢一兩 極罰 錢一兩五錢 損徒錢三兩 完議 座上 執綱 公員.”

184) 『金錢出納簿』辛巳年(1941).

출입하는 자는 論罰할 것.

7. 打作 마당에서 内外의 지위를 분명히 하여 상스러운 말이나 망령된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8. 마을 앞에서 술에 취한 자, 싸움을 하는 자, 욕설을 하는 자, 허튼 농담을 하는 자는 兩班의 경우 論罰하고 常漢의 경우 벌로 笞 10대를 가할 것.

9. 양반가 총각과 常漢들이 마을 앞을 오갈 때 곰방대를 물거나 뒷짐을 지고 다니는 자는 笞罰할 것.¹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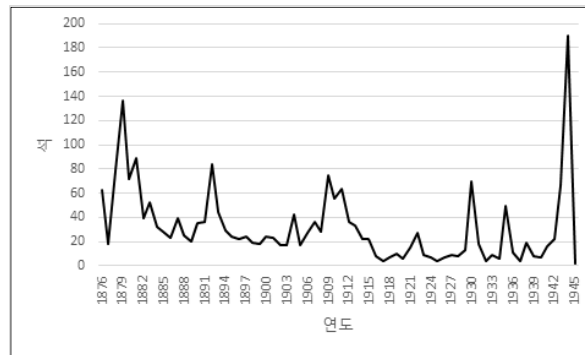
위 어서리 동계와 앞의 하고동 금고계 약조의 분위기가 거의 비슷하다. 이 같은 동헌이나 동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동민이 그 내용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두레 생성은 동민들이 ‘우리는 한마을 사람’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져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 19세기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장흥·강진에서 19세기 들어와서야 동 단위의 각종 계가 창설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장흥과 강진 여러 동에서 만들어진 각종 계는 동계와 긴밀한 관련을 맺었고, 동계는 공동납을 위한 응세조직으로 기능했다.¹⁸⁶⁾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두레가 19세기에 등장했다’¹⁸⁷⁾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동 단위의 공동납을 강요함으로써 동민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두레 생성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민의 호혜[內因]보다 공동납의 강요[外因]가 두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두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외인은 일제시기 들어 크게 약화되었다. 일제시기 들어 마을 단위의 공동납체제가 사실상 해체된 것이다. 이는 동중의 지출 규모 축소로 이어졌다. 모산동 사례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동중연하기』

185) 『語西洞案』 「約條」, 이용기, 앞의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에서 재인용.

186) 이용기, 앞의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김건태, 앞의 「19세기 공동납과 마을자치」.

187) 張基昌, 앞의 「農社に就て」 『朝鮮彙報』.



〈그림 20〉 1876~1945년 모산동 동중 지출 현황

에서 드러난 모산동 동중의 지출 규모는 단기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 줄어든다. (〈그림 20〉 참조) 그런 가운데 供出과 관련된 지출이 많은 1944년을 제외하면 1915년 이전과 1916년 이후의 지출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인다. 1876~1915년에는 연평균 39.8석, 1916~1943년에는 15.8석이다.

공동납의 소멸은 두레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보았듯이 동중은 공동납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두레농사[동중운력, 두레운력]를 기획하고 주관했다. 그런데 공동납의 소멸로 그러한 명분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는 하민에 대한 상민[동중]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졌다. 그렇게 됨으로써 동민들의 연대에 균열이 나타나게 되었고, 나아가 상호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앞에서 보았듯이 장흥·강진의 몇몇 마을에서는 1920년대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을 세우거나 전당을 잡히도록 했다. 그리고 자미동에서는 上民들이 주도하여 1914년 설립한 農稷에 반기를 든 하민들이 1920년대 更新勤農組合契를 설립하기도 했다. 하민들은 上民들이 주도하는 동중과의 관계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애썼다. 앞서 보았듯이 자미동 更新勤農組合契는 여타 3개 두레와 달리 동중과 관련된 재정 지출이 거의 없었다.

하민들의 저항은 급기야 두레 해체로 이어졌다. 두레 해체란 조직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1938년 모산동 상부계가 동계에 통합되었는데, 이것이 곧 두레 해체를 의미한다. 동민간의 상호신뢰에 금이 가자 두레가 빠르게 해체되었다. 예컨대, 1920년경 수원군 내 21면에는 321개 두레패

에 5,752명의 두레꾼이 속해있었으나 1929년에는 241개 3,859명으로 줄어들었다. 10년 동안 두레패는 25%, 두레꾼은 33% 감소한 셈이다.¹⁸⁸⁾ 두레에 대한 하민들의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전까지는 많은 두레가 존속했다. 일제가 농계와 각종 조합설립을 후원하고, 나아가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공동노동을 장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미동에서 1914년 농계가, 1920년 갱신근농조합계가 창설된 것도 일제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레가 해체되었다고 해서 지주가의 家作耕作에서 20명 이상이 함께 하는 공동작업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세기 중반 두레꾼을 동원하여 이앙과 제초를 하던 예천 맛질 박씨가는 그 이후 언젠가부터는 日雇를 동원하여 농사를 지었다. 아마 19세기 후반 맛질에서는 두레가 해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는 1920년 이후에도 가작지 경작에 20명 이상을 한꺼번에 동원하기도 하였다.¹⁸⁹⁾ 그렇다면 두레가 존속하던 때와 해체된 이후 공동작업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두 공동노동의 성격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지주가 두레꾼을 동원할 때는 작업계약과 품삯 정산을 임원하고 했기 때문에 작업 주체인 두레꾼 대부분은 소외되었다. 두레꾼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을 해야 했고, 품값도 주는 대로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두레가 해체된 이후에는 지주와 품꾼[日雇]이 일대일로 직접 만나, 즉 지주와 품꾼이 낫을 맞대고 작업계약과 품삯 정산을 했다. 마침내 품꾼이 계약에서 정산에 이르는 공동농작업 전 과정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두레농사에 비해 품삯 총액은 늘어났지만 작업의 질은 오히려 높아졌다. 지주들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작업의 질을 높이려면 농작업 동안에는 농약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두레가 해체된 마을의 농약기는 먼지를 뒤집어쓴 채 內室이나 곳간 한구석에 나뒹굴게 되었던 것이다.¹⁹⁰⁾

188) 金榮浩, 1930 『水原地方に於ける農旗ツレベ』 『朝鮮農會報』 4(8). 안승택, 앞의 『해방 전 후 한국농촌의 공동노동과 호락질』에서 재인용.

189)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2, 辛酉年(1921) 6月 26日, 用三十丁耘晚秧; 壬戌年(1922) 6月 4日, 用卅七丁耘畢; 癸亥年(1923) 6月 17日, 用三十一丁 耘晚種及再耘未畢; 庚午年(1930) 5月, 16日, 募卅二丁 種廊前畝及路外新家畝早秧.

190) 印貞植, 1943 『朝鮮農村雜記』, 東都書籍.

예천 맛질 박씨가는 두레가 해체된 이후의 공동농작업 실상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박씨가는 1927년 4월 1일~6월 21일까지 품꾼 34명을 적게는 1일 많게는 27.5일, 연인원 135명을 동원하여 가작지를 경작하고 개인별로 품삯을 정산했다.¹⁹¹⁾ 농사일정을 감안하면 이해 농사에 더 많은 일고를 고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는 20세기 전반까지 작업계약과 품값 정산 과정에서 머슴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지만¹⁹²⁾ 이 또한 지주와 품꾼이 직접 만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됨으로써 품꾼은 여유 시간, 품값 등 여러 조건이 맞으면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품꾼은 계약, 노동, 정산의 주체가 된 것이다. 사실 19세기~20세기 전반 하민, 나아가 농민들은 금전 문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다. 현존하는 각종 전장기에서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여러 단체[契, 洞中]의 수많은 전장기는 대체로 지출과 수입 항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兩, 錢, 分 단위까지 합산이 정확하다. 하민들은 두레가 존속되던 시기에는 上民[동중]의 위세에 놀려 품삯에 대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일제시기 들어서서는 더이상 두레농사에 참여하지 않고, 높은 임금을 받고 호락질을 다니는 하민들이 늘어났다.¹⁹³⁾ 1927년 27.5일 동안 맛질 박씨가의 일을 해준 景出¹⁹⁴⁾이 바로 건강하고 손놀림이 빨라 농사일을 잘하는 하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레는 해방 이후 급격히 사라진다. 농촌진흥운동으로 대변되는 외부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외부의 도움[공권력]이 끊어지자 上民[동중]이 더 이상 하민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고동 자료는 1950년대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동중은 1941년까지만 하더라도 洞法을 어긴 동민들에게 벌금을 징수할 정도로 위세가 등등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하고동에 전해오는 55종의 始末書와 誓約書가 그러한 사실을 전한다. 이 문서는 1956~1988년에

191)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1.

192)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2, 壬辰年(1892), 6월 10日 晚秋貰丁次一兩五錢給雇; 6월 11日, 一兩八錢又給雇 買丁; 6월 26日, 一文四錢給貰次 買丁次六錢給雇; 6월 28日, 命山畚朝前用丁貰一兩二錢 給雇; 己巳年(1929) 5월 23日, 秧丁極貴 使錢不得 非但雇輩之拙策.

193) 안승택, 앞의 『해방 전후 한국농촌의 공동노동과 호락질』.

194)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 1.

동규를 위반(음주 난동, 절도, 불효, 불경, 술 매매 등)한 본인 혹은 부모가 洞中에 제출한 것이다. 그중 25건이 1950년대 것이다. 1957년 11월 15일 동규 위반자가 동중에 제출한 아래 誓約書는 대동회[동중] 결의가 특별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拙者 今番 不美之事에 對하여 檀紀四二八九年 十一月 壹日 大洞會 決議로서 自進退去命을 受命한 點에 對하여 大端 잘못됨을 覺醒하와 謝過을 玆주오니 寬大히 諒察하시와 今番만 容恕하여 주시면 此後로는 如何한 不美之事가 有할 時난 附言할 것도 없이 部落民의 資格을 喪失함과 同時 自進退去할 것을 自覺 玆以誓約 하나이다.¹⁹⁵⁾

위에서 보듯이 동규 위반자에 대해 내려진 대동회 退去 명령은 용서를 비는 서약서 한 장으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1960년대 들어서는 동중에 대해 청년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던 것 같다. 1968년부터 금고계 가입비에 해당하는 진서주를 받지 못한 데서 그간의 사정을 읽을 수 있다. 젊은이들의 저항은 금고계, 곧 두레 해체의 결정타 역할을 했다. 1969년부터는 지면주마저 건지 못하게 되자 금고계는 1970년 4월 14일 잔금 100원을 里長에게 넘기고¹⁹⁶⁾ 사실상 해체된다. 이후 금고계는 단순히 악기관리 기구로 몇 년간 더 존속하다 1970년대 언제쯤 130여 년의 역사를 마감했다.¹⁹⁷⁾

하고동 금고계가 비록 1970년대까지 존속했지만 금고계의 두레적 성격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 소멸되었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고동 촌로들은 금고계의 공동농작업을 윤력이나 동두레로 여기지 않고 품앗이로 기억했다. 이는 두레 해체를 두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는 단체[모임]가 소멸하는 것이다. 모산동 상부계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농사 관련 윤력을 하던 단체가 더이상 그것을 하지 않으면 두레가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고동 금고계, 자미동 농계와 갯신근농조합계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하고동에

195) 『시말서철』 1966.

196) 『農軍進貢捧上冊』 庚戌年(1970) 4월 14日, 差引殘金 100원(里長許拂).

197) 『金鼓契引受引繼書』. 1972년 작성된 이 서류에는 인수인계하는 악기만 정리되어 있다.

서 언제부터 농사 관련 윤력이 사라졌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하고동 촌로들의 기억과 모산동 사례를 미루어 볼 때 해방 이후 금고계의 두레적 성격이 소멸되었다고 여겨진다. 참고로 모산동 농사 관련 윤력은 1946년까지 행해졌다.¹⁹⁸⁾ 일제시기 울산지방에서 農廳은 존속하는데, 두레는 해체되었다¹⁹⁹⁾고 말하는 것에서도 윤력과 두레의 연관성을 읽을 수 있다.

하고동과 울산 사례는 민속 생활어와 학술 개념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농민들이 두레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학술적 차원에서 두레가 지속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평택시 고잔리에 거주하던 신권식(1929년 생)이 쓴 아래 『평택일기』를 보자.

1959년 6월 26일, 특기 - 顯雨氏 家 일. 애벌 푸마시 끝. 朝飯을 마치고 顯雨氏 家 일을 갈는데 今年 들어 第一 더운 날이었다. …… 우리 두레 폐장 애벌은 끝나는 날이다.²⁰⁰⁾

신권식은 독특한 양식으로 일기로 썼다.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은 ‘특기’라고 쓰고 하루 일을 요약한 다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위의 ‘顯雨氏 家 일. 애벌 푸마시 끝.’이 ‘특기’에 해당한다. 위에서 보듯이 신권식씨는 ‘푸마시[품앗이]를 ‘두레’라 여겼다. 이는 하고동 사람들이 금고계가 주관하는 공동노동을 품앗이로 생각했던 것과 같은 양상이다.²⁰¹⁾ 그런데 1959년도 고잔리 두레농사는 강제성에 기반한 동중윤력이나 두레윤력이 아니라 자율성에 기반한 동두레다. 당시 고잔리에는 ‘큰두레’와 ‘저근두레’로 불리는 두 두레가 있었는데, 두레패는 서로 품앗이를 했던 것이다.²⁰²⁾ 고잔리 공동농사는 학술적으로 볼 때 두레가 아니라 품앗이가 되는 것이다.

고잔리 사례는 동두레가 해체된 이후 품앗이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배경을

198) 『洞契年用冊』 丙戌年(1946) 11月 20日, 移秧 運役錢 4,250圓.

199) 姜鋌澤, 앞의 『朝鮮に於ける共同勞動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

200) 『평택일기』. 경북대학교 안승택 교수가 제공해준 자료다. 안승택 교수에게 감사한다.

201) 3장 참조.

202) 『평택일기』 1961년 7월 12일, 우리 두레는 前日로서 끝났다. 洞里에서 큰 두레와 저근 두레 둘로 나누었는데 내가 다니는 두레는 前日로서 끝나고 저근 두레는 모래까지 간다.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고잔리 품앗이는 일대일의 무상노동 교환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즉 고잔리 품앗이는 유상노동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었다. 아래 1959년 『평택일기』를 보자.

1959년 6월 24·25일, 德雨 푸마시 禧雨氏 家 일. 水村 아저씨 푸마시 致雨 家 일
 …… 24(일), 朝飯을 마치고 德雨가 일해가는 푸마시 일, 禧雨씨 일을 갈다 왔다.
 …… 25(일), 朝飯을 마치고 水村아저씨 푸마시 네재祖父 家 일을 갈다.²⁰³⁾

위에서 보듯이 신권식은 德雨에 대한 품앗이로 그의 일을 해준 것이 아니고 禧雨氏 일을 했다. 덕우가 자기에게 갚아야 할 품으로 희우씨 일을 해주라고 요구한 듯하다. 그리고 水村아저씨에 대한 품앗이로 넷째 祖父, 즉 致雨 家 일을 해주었다. 그런데 일기는 덕우와 희우, 그리고 水村아저씨와 넷째 조부 사이에 품값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하지 않는다. 즉 그들 사이에 일대일의 노동력 교환이 있었는지, 아니면 품값을 쳐주었는지(희우씨가 덕우에게, 넷째 조부가 水村아저씨에게)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받아야 할 품이 있는 사람이 그에게 갚아야 할 품이 있는 사람의 품을 3자에게 넘기는 것을 단순한 무상노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유상노동의 성격을 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품앗이가 내용 측면에서 유상노동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래 『평택일기』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964년 5월 26일, 품꾼 3名인데 1名은 일 보내고 2名과 나는 집에서 나는 한참 소를 갈고 아논을 쓰리고 심었다. 일직 심고 피사리를 했다. 2名은 우리 집에서 잔다.

1964년 5월 26일, 품꾼 1名과 농꿀서 3名을 사갈고 1名은 소를 부리고 5名이 농꿀골장 6마지기를 심었다. …… 품꾼 1名은 洞里 품아시를 다니고 있다.

1964년 5월 28일, 오늘은 소를 부리었다. 종일 부린 소는 농꿀 아논 장씨래을 놓고 발원 닷마지기를 씨리었다. …… 품꾼은 일을 갈다 일직 도라왔다.

1964년 6월 2일, 품꾼만 일을 보내고 나는 발달뱅이를 갈아 쓰리었다.²⁰⁴⁾

203) 『평택일기』.

신권식씨는 품꾼을 사서 품앗이를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품앗이는 유상노동이나 다름없다. 내용 측면에서 유상노동적 성격을 갖는 품앗이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모산동과 언양현 천소동 사례에서 보았듯이 19세기 농가의 경작규모가 크게 달랐기 때문에 오직 일대일의 무상노동 교환만으로 품앗이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여겨진다. 이같이 품앗이가 형식 측면에서는 무상노동 교환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유상노동 성격을 가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유상노동에 기반한 동두레가 해체된 이후 품앗이가 그 자리를 쉽게 대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두레는 우리말 ‘모임’, 한자 ‘團·社’의 뜻을 가진 말이다. 그렇기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두레패, 그들이 연주한 농악을 두레노리, 그들이 참여한 농사일을 두레농사라고 칭할 수 있다. ‘두레’ 두 글자는 1900년대 들어 사람들의 뇌리에서 빠르게 잊혀 가다가 1930년 전후 농촌계몽운동, 이른바 브나로드운동의 영향으로 일상생활 속으로 소환되었다.

두레 가입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었다. 즉 모든 동민은 일정 나이가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 동네에서 설립된 어떤 계도 동민을 강제로 가입시킬 수 없었음을 상기하면 이해가 쉽다. 16~30세 사이에 자신이 원할 때 두레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에 가입했다. 그리고 한집에서 여러 명이 가입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도 가입했다.

일반 두레꾼과 임원 사이에는 엄격한 상하관계가 존재했다. 최고위직인 좌상은 통솔력이 있고, 농사일에 밝은 사람이 맡았다. 그러다 보니 30·40대가 좌상을 맡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사이에는 느슨한 상하관계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두레 임원의 권위는 내부에서만 인정되었다. 즉 그들은 동중 계

204) 『평택일기』.

반사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洞內에서 차지하는 두레의 위상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레는 동네 下民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동계의 洞首, 임원 같은 동중의 유력자들은 두레 임원을 역임하려 들지 않았다.

두레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 두레마다 구체적 양상은 상이했지만 대체로 이자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두레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재산증식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 해는 踏場錢도 두레나 동중에서 가져갔다. 이 경우 두레나 동중에서 가져갈 양은 개별 가호마다 미리 배분했다. 다시 말해 평년에는 답장전을 마당밭가에 참여한 두레꾼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

한편 두레농사, 즉 공동농작업 수입은 거의 없었다. 두레농사는 크게 세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동중운력으로, 호마다 1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나오지 않으면 賃전[벌금]을 내야 했다. 운력을 하고 받은 품삯은 원칙적으로 동중에서 관리한다. 둘째 두레운력으로, 계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나오지 않으면 賃전을 내야 했다. 운력을 하고 받은 품삯은 원칙적으로 계에서 관리한다. 셋째 동두레로,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계원의 자율에 맡기며 품삯은 참여 날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한다. 강제성에 기초한 동중운력과 두레운력은 일 년에 수일 실시 되었으며, 가끔 쉬는 해도 있었다.

운력의 품삯은 도급제로 정산되었는데, 이점이 두레농사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두레농사를 계약하고 품삯을 정산할 때 지주는 통상 두레의 임원만 만나고, 직접 농작업을 하는 일반 두레꾼은 보지 않았다. 농작업의 주체인 두레꾼은 정작 계약과 정산과정에서 소외되었다. 그들은 오직 일하러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만 되는 존재에 불과했다.

두레는 약간의 흑자를 남길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했다. 두레 지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은 농약기 구입비였다. 19세기 후반에는 농약기 한 벌[징, 썰과리, 북]을 구입하는 데 벼 5섬 정도 들었다. 19세기 후반 가격을 미루어볼 때 농약의 일반화는 구리값이 크게 하락하는 1820년대 이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레와 농약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약대가 없는 두레도 적지 않았다. 가난한 두레는 농약기를 구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농약기 구입비와 더불어 洞用으로 지출한 돈도 많았다. 이는 동중 재정을 보전하는 것이 두레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이같이 洞中은 운력, 답장, 재정문제 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두레를 지휘·감독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깊이 관여했다. 사실 유력자[上民]로 대표되는 洞中이 下民(신분적, 경제적, 연령적 측면)을 지배하려는 목적에서 두레 결성을 지원했다. 두레 결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동민들이 '우리는 한마을 사람'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동민들은 정부가 동 단위의 공동납을 강요함으로써 일정 정도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두레 생성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동민의 호혜[內因]보다 공동납의 강요[外因]가 두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두레는 동 단위 공동납이 활성화되는 19세기 들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것이다.

두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외인은 일제시기 들어 크게 약화되었다. 일제시기 들어 마을 단위의 공동납체제가 사실상 해체된 것이다. 이는 하민에 대한 上民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졌다. 그렇게 됨으로써 동민들의 연대에 균열이 나타나게 되었고, 나아가 상호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하민들의 저항은 급기야 두레 해체로 이어졌다. 두레에 대한 하민들의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전까지는 많은 두레가 존속했다. 일제가 농계와 각종 조합설립을 후원하고, 나아가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공동노동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두레는 해방 이후 급격히 사라진다. 농촌진흥운동으로 대변되는 외부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두레 해체는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단체[모임]가 소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농사 관련 운력을 하던 단체가 더이상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두레가 해체되는 것이다.

두레가 해체되었다고 해서 수십 명이 함께 하는 공동농작업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레가 존속하던 때와 해체된 이후 공동농작업의 성격은 달랐다. 두레가 해체된 이후에는 지주와 품꾼[日雇]이 일대일로 직접 만나, 즉 지주와 품꾼이 낫을 맞대고 작업계약과 품삯 정산을 했다. 마침내 품꾼이 계약에서 정산에 이르는 공동농작업 전 과정의 주체가 된 것이다.

두레 해체가 가지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두레가 해체됨으로써 신분제적

지배에 바탕을 둔 공동농작업이 우리 역사에서 종말을 고한 것이다. 신분제적 지배에 바탕을 둔 농작업이 언제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5~16세기 농장이 노비제에 기초해서 운영된 것은 분명하다. 농장이 해체된 이후에도 지주들은 노비를 동원하여 수십 두락의 전답을 家作했다. 그런데 노비제에 바탕을 둔 가작은 18세기 후반부터 노비들의 태업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세기 전 후하여 두레가 생겨나게 된 또 다른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비제 해체였던 것이다. 上民[신분적, 경제적]들은 노비를 두레꾼으로 대체했던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신분제가 20세기 전반까지는 끈질기게 그 생명을 연장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 두레, 마을, 하민, 강제성, 공동납

투고일(2021. 11. 2), 심사시작일(2021. 12. 3), 심사완료일(2021. 12. 27)

〈Abstract〉

The Causes of the Formation and Disbandment of Doore(Korean Farmer's Cooperative Groups)

Kim, Kuentae *

Doore means gathering in Korean. Membership to the Doore was voluntary. Therefore, it was common for several members in one household and even people from different towns to join. There was a strict hierarchy between a regular Doore member and an officer. Jwasang, the highest position, was held by a person with excellent leadership skills and outstanding knowledge in agriculture. On that account, it was standard for members in their 30's or 40's to undertake the jwasang position, and the hierarchical relation was loosely established among officers. However, the officers' authority was only recognized within the Doore community. In other words, they rarely influenced other matters in the village because Doore's status in the village was menial. The lower-class people of the village mainly operated Doore.

Doore raised money through various methods. Even though the specific modality of each Doore differed, interest income generally assumed a large portion of their entire income, which denotes that one of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Doore was to increase property. Meanwhile, income from Doore agriculture or farm cooperative was minimal. Doore farming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big categories:

1. As a village collaboration, at least one member from each household was to participate, and absentees were to pay penalties. In principle, the village administered the wages earned from the collaboration.
2. As a Doore collaboration, it was mandatory for all members to participate, and absentees were to pay an installment. As a rule, the group managed the wages earned from the collaboration.
3. As village Doore collaboration, participation was entirely voluntary, and wages were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Colleg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qually distributed depending on the participated days.

Village and Doore collaborations were based on mandatory requirements, and they were enforced for several days a year except for occasional yearly breaks.

A reason why the Doore formation was possible was due to the solidarity awareness that “we are united in one town.” To a certain extent, villagers had a sense of solidarity due to the government enforcement on village units' joint tax payment, which also led to the formation of the Doore. It can be said that the coerced joint tax payment played a more significant role in the arising of Doore than the villagers' reciprocity. In other words, Doores began to rapidly increase in the 19th century when the village units' joint tax payment was activated. Foreigners who had a remarkable impact on the creation of Doore significantly weakened during Japanese imperialism. As a matter of fact, village units' joint tax payment was eliminated with the beginning of Japanese imperialism. Such was followed by the weakening of higher class control over the lower class. Consequently, a rift in the solidarity among villagers began to occur, and their mutual trust was also damaged. As a result, resistance from the lower class eventually led to the disbandment of Doore. However, despite the resistance from the lower class towards the Doore, several Doores continued to exist until independence because Japanese imperialism funded farm industries and a variety of establishment of unions and, by extension, encouraged joint labor through the rural development movement. Nevertheless, Doore rapidly disappeared after independence as foreign forces representing the rural development movement disappeared.

Key Words : doore, village, lower-class people, mandatory requirements, joint tax payment